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분석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서 연 금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분석

배지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서연금

인 준 서

서연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담론을 통하여 교사들이 종일반 유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교사들의 현장 속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종일반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고자 한다. 종일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본 연구의 결과는 종일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종일반 유아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2.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2007년 4월 26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1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2회의 집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9회의 개별면담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종일반 경험이 있는 교사는 5명이다. 자료 수집은 현장약기와 녹음을 통해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자료 전사본과 현장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야기와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이야기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은 유치원에서 지내는 종일반 유

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종일반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종일반 유아의 내면적 고충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반일반의 일과 속에서 경험하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분석한 결과 '똑 소리 나게 야무지지만 영악한 아이',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하는 제 2의 선생님', '교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 '산만하고 과격한 문제행동 유발자', '관심 받고 싶은 아이', '교사를 힘들게 할 아이'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이라는 교육적인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교사·또래 모두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인지적·사회적·언어적 발달이라는 혜택을 얻는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영악한 아이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를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하고 교실에서 제 2의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종일반 유아는 또래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그로 인해 종일반 유아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종일반 유아는 유치원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는 종일반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교사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반면,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기관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소극적 행동, 과잉행동, 우는 행동, 고집부리는 행동, 거짓말 등의 문제행동 또는 칭찬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서 교사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종일반 유아는 교사와 좀 더 많이 개인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위해 다른 유아보다 더욱 노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험을 통해 종일반 유아가 영악함,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 관심끌기 행동을 보인다고 인식

하게 되고 '종일반 유아는 교사를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일반 유아들은 그들만의 특수한 배경변인과 종일반 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내면적 고충이 있으며 그 내용은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종일반은 나에게 기다림의 공간이에요'로 나타났다. 종일반 유아는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정이 결핍되기 쉬우며 종일반 유아가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이유도 교사와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또한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들에게 편안한 가정에서의 휴식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치원은 유아에게 제한사항을 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이상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종일반 유아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종일반 유아들의 또 다른 내면적 고충은 종일반에서 지낼 때 자신을 데려갈 양육자를 기다리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유아에게 종일반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둘째,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은 시대적으로 종일반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교사들의 의견,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일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보다 바람직한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교사들은 환경적인 측면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기존의 종일반 프로그램을 재정립해야하고, 종일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종일반 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생각은 기러기생활 같은 종일반을 청산하고 독립된 공간의 종일반 교실을 확보해야 함과, 종일반 전담교사의 배치 및 교사자격의 재정립을 통해 무늬만 갖춘 종일반에서 탈

피해야 하는 것, 틀에 고정된 종일반 교실에서 벗어나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직화할 수 있었다. 독립된 교실이 없는 종일반 생활은 유아와 종일반 교사, 반일반 교사 모두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종일반 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경력을 가진 정교사를 뽑았으며 그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종일반 교실의 가정 같은 분위기를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비율을 줄여야 하고, 기존의 교실 영역배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종일반 프로그램의 재정립을 위해 종일반 프로그램은 융통성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정해진 일과운영의 틀에서 벗어나도 괜찮다는 제도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종일반의 개선을 위해 종일반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내용은 유아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로 자녀를 종일반에 보내면서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혜택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일반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로 종일반 교사에 대한 선입견과 종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자	4
II. 이론적 배경	8
1. 종일반의 개념과 운영 현황	8
2. 종일반 유아의 특성	12
3. 선행 연구	16
III. 연구방법	18
1. 연구 참여자	18
2. 연구절차	23
3.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27
IV. 결과 및 해석	28
1.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야기	28
1)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반일반에서의 '종일반 유아'	28
2)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종일반 유아'의 내면적 고충	45
2.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이야기	51
1) 종일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	51
2) 종일반 운영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생각	53
V. 결론 및 논의	66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교사들의 일반적 배경과 근무하는 유치원의 종일반 유형	24
<표 2> 핵심주제면담 일정	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자아실현 욕구로 인해 사회진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총 경제활동 참가율 중 50.2%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8).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을 위한 적절한 육아지원시스템인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중 종일제 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2004년도에 전체 유치원의 46.2% 정도였던 것에 비해 2006년도에는 총 8,290개소의 유치원 중 71.5%인 5,930개소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수는 2004년에 전체 취원아 수의 26.2%에서 2006년에는 48.6%로 늘어나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수가 절반에 미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2004년에는 「유아교육법」(2004.1.29, 법률 제 7129호)에서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기준'을 공시하여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종일제 운영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흐름은 종일제 운영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들었으며, 효율적인 종일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종일제 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종일제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종일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는 외국 연구 (Clark, 2001; Clark & Kirk, 2000; Da Costa & bell, 2000; Elicker & Mathur, 1997)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종일반 유아가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고선희, 2004; 김희형, 2002; 단현홍, 1997; 오경미, 2002; 조선숙, 2001; 진성아, 2006).

먼저 종일제와 반일제 유아의 공격성 차이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종일제 유아는 반일제 유아보다 공격성이 높고 (단현홍, 1997; 조선숙, 2001), 불안행동·위축행동·공격행동·미성숙행동을 포함한 전체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희, 2004). 또한 종일반 유아는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과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모두 반일반의 유아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김희형, 2002; 오경미, 2002; 진성아, 2007), 종일반 프로그램의 경험이 유아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정선구, 1990)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앞서 언급한 종일반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문제행동, 공격성 등에 대한 척도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여 교사들이 직접 체크하도록 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사들에게 유아의 행동을 체크하도록 한 이유는 교사가 유치원 교실 안에서 유아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진성아, 2007), 부모보다 더 능숙하게 정상행동과 문제행동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하정, 1998). 그러나 교사의 평정은 교사의 인식에 바탕을 두게 되므로 교사들이 종일반 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인식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의해 교사-유아 간 관계가 달라진다는(이선주, 2007)는 것이다. 종일반 유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종일반 유아는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많이 보인다면 교사는 종일반 유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이

며,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은 유아기 개념발달 및 사회성 발달과 정서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민혜영, 1998; 안수연, 2000). 그렇다면 교사는 종일반 유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교사가 가지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생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루어진 종일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구정주, 2001; 이문옥, 2004; 이윤정, 2006; 정미라·홍용희·엄정애·이순영, 2000; 홍용희·김기혜·강경아·이순영, 2007)와 종일반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연구(고지민, 2003; 김희형, 2002; 오경미, 2002; 이송희, 2006; 정혜경, 2008; 조선숙, 2001; 진성아, 2007)가 있다. 또한 종일반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사·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김남희, 2003; 김미숙, 2004; 안선희, 2001; 윤경숙, 2007; 정미선, 2007; 최미숙, 2005)와 종일반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고미란, 2003; 김혜진, 2005; 이명화, 2002)가 있다. 교사와 부모의 종일반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종일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연구(박영민, 2007; 안선희, 2001; 정미선, 2007; 최미숙, 2005)는 종일반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설문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종일반의 어려움을 문화기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배지희·이봉선·탁옥경, 2005; 서현·이승은, 2008)는 연구대상이 종일반 담당교사로 국한되어 있고 종일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질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담론을 통하여 교사들이 종일반 유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교사들의 현장 속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종일반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고자 한다. 종일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본 연구의 결과는 종일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종일반 유아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2)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3. 연구자

1) 어린 시절의 나 -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나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3주 만의 산후조리 후 갖 태어난 나를 두고 출근을 하셔야 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닌 대리양육자의 손에서 3살까지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내가 유치원에 다니던 해에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셨다. 하지만 나는 초기에 엄마와의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이유 때문인지 항상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외출한 후 돌아오기로 약속한 시간 30분 전부터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며 ‘엄마가 오지 않을 것 같다’며 울며 기다리던 나의 모습이다.

유아교육과에 진학해 안정된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배우고 난 뒤 나는 수수께끼 같았던 나의 어린 시절의 불안한 행동에 대한 해답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된다면 절대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으며, 내 주변의 이들에게 생애초기의 부모와의 관

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2) 현장에서의 나 - 종일반 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나

4년 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부푼 열정을 안고 들어간 첫 직장은 질적 환경도 우수하고 교사대우도 좋은 편인 직장어린이집이었다.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곳의 유아들은 오후 6시가 되어도 한반의 과반수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나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하였다. 원 생활에 익숙한 유아들은 교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침 7시 반부터 유아들과 상호작용해온 교사들은 오후가 되면 웃음을 잃었다. 나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다루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교육전공자로서 어린이집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유치원에서의 현장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1년이 지난 후 유치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규모가 크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던 유치원에서 의욕적인 교사로서 유아교육의 이론을 실천하고 경험을 쌓아가던 중 한 일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종일반이라는 공간에 있는 유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치원 교사 2년차이던 어느 날 아침, 유난히도 일찍 등원한 한 옆반 유아가 있다. 아침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은 교사에게 꿀맛과도 같기에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린 옆반 선생님은 나와 눈을 마주치며 올상을 짓는다. 옆반 선생님은 첫 등원한 유아와 배꼽인사를 나누려고 자세를 잡는다. 하지만 유아는 받아주지 않고 신발장 앞에 주저앉는다. 옆반 선생님이 'oo야, 안녕하십니까?' 하며 다시 인사를 하지만 oo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옆반 선생님은 체념한 표정을 짓더

니 oo에게 다가가 일으킨 뒤 배꼽 손을 만들어 주고 'ooo, 안녕하세요 니까?' 하며 함께 인사한다. 교사의 3번의 시도 끝에 인사를 마친 oo는 실내화를 신지 않고 교실로 들어간다. 옆반 선생님은 oo에게 'oo야, 실내화 신고 들어와야지.' 하지만 oo는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다. 교사가 한번 더 이야기하자 oo는 밖에 있는 신발장에서 자신의 실내화를 꺼낸 뒤 조금 멀리 떨어진 바닥을 향해 던진다. oo는 뒤집어진 실내화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미끌어지며 앉는다. 옆반 선생님은 지켜보면서 팔짱을 끼고 조금은 단호하게 'ooo'하고 이름을 부른다. oo는 옆반 교사를 한 번 쳐다본 뒤 실내화를 신고 교실로 들어간다. 교실로 들어간 oo는 가방을 자신의 장에 넣더니 쌓기 영역으로 간다. 그리고 쌓기영역 교구인 레고를 카페트 바닥에 엮어버린다. oo의 행동을 지켜보던 나는 옆반 선생님을 보며 조금은 놀랐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 힘들겠어요 ' 하고 입모양으로 말한다. 옆 반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oo를 힐끔 보고난 뒤 나를 보며 ' 종일반이야 ' 하고 유아에게 들리지 않게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 아.. ' 하며 공감한다. 나는 우리 반으로 들어와 커피한 모금을 훌쩍이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 종일반애구나 ' 하고 중얼거린다.

위 일화에서 옆 반 선생님과 본 연구자는 '종일반 유아'라는 단어를 단순히 외면적인 뜻인 '종일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유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동료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종일반 유아'라는 우리만의 해석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본 연구자는 논리적으로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종일반 유아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연구자로서의 나 - 문화 기술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나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질적연구라는 학문을 접하게 되었으며, 종일반 유아에게 가지는 나와 동료교사들의 생각을 Spradley(1979)가 정의한 문화적 지식 즉, “사람들이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을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획득된 지식”에 해당한다고 본다. 교사들은 그들의 문화적 지식을 사용하여 종일반 유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아교육현장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이 느끼는 것으로 현장 밖의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암묵적 문화지식이였다. 본 연구자는 유치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담론을 통해 그들의 종일반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종일반의 개념과 운영 현황

1) 종일반의 개념 및 유형

최근 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과 사회 구조의 변화 및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종일제 프로그램이란 반일제 프로그램 이상의 교육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아기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들의 사회적·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아들의 교육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즉 유아를 만나절이 아닌 종일동안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한국유아교육학회, 2008).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르면 유치원에서의 1일 3시간 이상 5시간미만의 교육과정을 반일제,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시간연장제,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종일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의 종일반은 발달적 탁아, 종합적 탁아, 질적 탁아에 기초한 사회, 건강, 영양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호의 기능과 전인적인 교육의 기능을 통합한 포괄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의 되고 있다(교육부, 2000).

종일반은 3, 4, 5세의 연령적 발달 특성과 교육 대상 유아의 가정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종일제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환경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Fromberg, 1987), 또 유치원의 운영시간, 학급 집단 구성, 대상 연령에 의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부(2000)에서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종일반 유형은 학급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독립 종일반과 오후 재편성 종일반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학급 집단 구성의 연령에 따라 동일 연령 종일반과 혼합 연령 종일반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독립 종일반은 독립된 학급으로 구성되어 유아들이 오전 등원 시간부터 오후 귀가 시간까지 동일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하루 일과를 보내도록 운영된다. 독립된 종일반의 교사들은 유아들이 반일반 유아들보다 유치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고 또래나 교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종일반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및 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양육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오전에 유아의 기분과 신체적 문제를 유의하여 오후활동을 계획하여야 하며 오전과 오후의 연계성 있는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교육 받을 수 있다.

오후 재편성 종일반은 오전에는 각기 다른 반일반 학급에서 반일반의 담임교사와 오전 일과를 보낸 후에 종일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들로 별도의 종일반 학급을 재편성하여 오후 일과를 보내도록 운영된다(고지민, 2003). 오후에 별도로 구성된 종일반은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적인 측면을 볼 때 재정이나 시설 면에서는 용이하지만, 유아들은 오전반에 비해 종일반 학급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교사들은 오전과 종일제 학급의 연계가 어렵고 학급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정미라 · 홍용희 · 엄정애 · 이순영, 2004).

또한, 동일 연령 집단의 종일반은 유아들을 3세, 4세, 5세의 각각의 같은 연령만으로 한 학급을 구성하며, 각 연령별로 발달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동일연령으로 학급을 구성하면 유아들 간의 요구 및 발달 수준이 유사하여 일과를 계획하거나 환경을 구성하

는데 용이하하며 또래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정미라 외, 2004).

반면, 각 연령별 유아의 수가 한 학급을 구성하기 부족하거나 혼합 연령 집단의 교육활동을 원하는 유치원에서는 혼합 연령 집단의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00). 핵가족화로 인해 외동아나 형제가 적은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며, 혼합 연령 학급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유아들이 경험하기 힘든 형제관계와 유사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5세 유아들은 3, 4세 유아들을 도와주고 양보하는 역할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3, 4세 유아들에게 전달해주는 경험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을 정교화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3, 4세 유아들은 5세 유아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연령이 많은 유아들의 인지 및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교육부, 2000). 하지만 유아들 간의 발달 수준이나 능력간의 차이로 인해서 학습활동을 계획하거나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면이 있다.

2) 종일반의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오후에 학급이 재편성되면서 혼합 연령 집단으로 구성된 종일반이 더 많은 실정이다. 서울에 소재한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96%의 유치원이 오후 재편성 종일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이문옥, 2004), 서울·대전·대구·부산지역의 종일반 운영현황을 조사한 박세진(2003)의 연구에서도 종일반의 93%가 오후 재편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80%가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국 유치원 중 937개소를 대상으로 종일제 프로그램의 연령별 집단 구성을 조사한 결과 단일 연령 학급(14.3%)보다 혼합 연령 학급(85.7%)이 더 많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일반 운영은 점차 늘어가는 것에 비해 그 운영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시설·설비나 재정적인 문제, 종일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면에서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김현희, 2003; 윤경숙, 2007; 정미라 외, 2000). 전국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종일반 교사 198명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일반을 위한 단독 교실이 있는 경우가 23.7% 밖에 되지 않았고, 종일반 교사들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종일반 전담교사는 대부분 정교사로서의 어떠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김현희, 2003). 또한 종일반 교사들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으나 개발된 종일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이 부족하여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홍용희 외, 2007).

홍용희 외(2007)는 우리나라 유아들의 발달적·교육적·사회적 요구에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이 오랜 시간 유치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가정생활이나 기본생활습관, 유아간 형제애 등에 대한 경험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둘째, 긴 일과시간을 활용하여 심화·확장된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하고 신체 단련 및 자연친화 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일과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다양해 질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종일반 운영을 위해 학급당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진 정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고, 혼합연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어야 한다.

2. 종일반 유아의 특성

종일반의 운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들이 종일반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반 유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일반 유아 가 가지는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의 발달적인 면과 행동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일반 유아의 발달적 특성

종일반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신체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에 종일반의 경험으로 운동발달과 활동성을 증진시키고 신체적인 발달의 효과를 준다(Stewart, 1995). 종일반 프로그램이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은 실외놀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종일반 유아들은 유치원에서의 하루일과가 길기 때문에 실외놀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실외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발산함과 동시에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 자연 체험적 활동을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배지희 외, 2005).

지적 발달 측면을 보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반일제, 종일제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종일반 유치원에 참여한 유아들은 이후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Cryan, 1992). 또한 종일반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1학년 읽기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Ericker & Mathur, 1997),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은 인지·언어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Burchinal & Lee & Ramey, 1989).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2~4세의 유아들에게서 인지적인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이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사, 시설 등이 우수한 경우이며 질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NICHD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정서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종일반 유아를 보냄으로 유아가 오랜 시간동안 기관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연구들이 있으며 Schwartz(1983)는 유아가 장시간 기관에 머물 경우 유아와 어머니가 적절한 애착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숙(2001)은 종일반이 가지는 단점으로 오랜 시간 가정과 격리되어 유아의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하지만 Hoewes와 Hamilton(1992)은 교사-유아간의 안정적 관계는 부모와의 격리에서 느끼는 불안을 완충하고 부모에 대한 안정애각의 결핍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며,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유아들의 경우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님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Egeland & Hiester, 1995). 따라서 단순히 기관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유아의 정서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는 유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Sagi, Koren-Karie, Gini, Ziv & Joels, 2002).

사회성 발달의 측면을 보면, 한 자녀 가족이 증가하는 요즘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종일반은 유아에게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장점이 있다. Stewart(1990)는 종일반 경험이 있는 유아가 더 사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질 높은 종일반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Harman(1982)은 종일제 프로그램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또래 친구 교사와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종일반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일반 유아는 유

아교육기관이라는 교육적인 공간에 장시간 머물면서 신체적·인지적 측면에서 보다 더 발달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진다. 또한 종일반에서 지내는 동안 교사 및 또래유아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회성 역시 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과 격리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2) 종일반 유아의 행동특성

종일반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반일반 유아들과 비교하여 나타난 결과들이 많으며, 주된 내용은 문제행동 및 스트레스 행동, 기타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종일반 유아의 문제행동과 스트레스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종일반 유아는 반일반 유아보다 문제행동과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고선희, 2005; 김희형, 2002; 오경미, 2002; 조선숙, 2001; 진성아, 2007).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이란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함 신체적·심리적 증세로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 빨기, 손톱 뜯기, 분노, 발작, 불안, 강박적인 행동, 함구증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진성아, 2007).

종일제와 반일제 유아의 문제행동 특성을 비교한 결과 종일제 유아는 반일제 유아보다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희, 2005). 특히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공격행동을 살펴본 조선숙(2001)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보다 종일제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공격성이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관에서 장시간을 보낸 유아들과 그렇지 않은 유아들의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을 4년 간 추적을 통해 비교한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2)연구결과 기관에서 오랜시

간을 보낸 유아들은 인지적인 측면은 높았으나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반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반일반과 종일반 운영에 따른 만 5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종일반 아동이 반일반 아동에 비해 몸으로 나타내는 행동 등의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과 자신과 물체에 대한 행동의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진성아, 2007). 또한 김희형(2002)의 연구에서도 종일반 유아가 반일반 유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상황 중에서도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지 않거나 부모가 행동을 제한할 때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반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연구로 신현정(2008)은 종일반 유아들이 겪는 스트레스 상황과 스트레스 표현방식에 대해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종일반 유아는 적어도 반일반 유아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송희(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유아들의 스트레스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질은 유아의 공격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관의 질이 낮을수록 유아들은 공격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나타냈다(조선숙, 2001). 따라서 종일반 유아들이 보이는 스트레스 행동은 종일반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행동 및 스트레스 행동 외에 종일반과 반일반 유아의 행동 특성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처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 종일반과 반일반 유아의 대처행동 유형을 비교한 연구결과 종일반 유아는 반일반 유아에 비해 수동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안지영·한진원·김성숙·이은영, 2007). 대처행동은 유아가 사회적 문제 상

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사용할수록 자기조절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희형(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종일반 유아들이 반일반 유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반 유아의 행동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반일반 유아들과 비교했을 때 종일반 유아들은 문제 행동, 스트레스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며, 공격성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일반 유아는 반일반 유아에 비해 수동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친사회적 행동 또한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다.

3. 선행 연구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종일반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조사가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서 교사 또는 부모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한 인식과 요구도 조사의 연구들은 운영 형태, 집단 구성, 교육 프로그램, 시설 설비 및 재정지원, 부모 참여, 교사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로 제한되어 있으며 종일반에 대한 인식을 문화기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종일반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종일반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일반의 문제점으로 시설·설비의 미비를 지적하였다. 종일반 전용교실이 마련되어야 함과 전담교사 및 보조교사의 충원을 가장 시급한 행정적 지원으로 보았다(윤경숙, 2007; 정미선, 2007). 또한 종일반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교사들은 요구하였다(안선희, 2001; 윤경숙, 2007; 이혜선, 2008; 정미선, 2007).

한편, 종일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며 배지희 외(2005)의 연구에서 종일반 전담교사들은 자신의 급여나 경력인정 등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것과 교육시설의 미비로 인한 불편함, 혼합 연령 구성 학급을 위한 놀이 계획과 지도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서현과 이승은(2008)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따른 교사와 유아의 어려움을 대해 연구한 결과, 종일반 교사들은 스스로를 유치원 내에서는 소속감이 없는 주변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담임교사로 대우해주지 않는 학부모와 유아들로 인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하였다.

또한 종일반 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김혜진(2005)의 연구결과 종일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57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휴가나 급여 등에서의 불합리한 대우, 정규교사가 아닌 불안정한 지위, 학급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및 자료의 미비, 유치원에서의 잡무,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교사간 의사소통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러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엄정애와 김혜진(2005)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교사들은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교사들에 비해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은 적게 하고 비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종일반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사들은 종일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종일반 운영의 시설·설비나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일반 전담 교사들은 종일반 학급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교사들은 모두 반일반 담임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있으며, 10명 중 5명은 종일반 전담교사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일반 전담교사이다.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담론분석이 주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무엇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야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갔느냐 하는 정도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영천, 2006) 이미 연구자와 어느 정도 레포 형성을 이루고 있는 교사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Spradley(1979)가 언급한 좋은 제보자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자이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화를 분석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와 함께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함께 해 온 동기 4명, 후배 2명과 같은 유치원에서 1년 반 동안 함께 근무했던 교사 2명, 교회 유치부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동료로서 현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2명 총 10명이다. 이들은 유치원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며 본 연구자와 알고 지낸 시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이미 레포 형성이 되어있다.

2) 연구 참여자의 배경

문화기술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 중 정보제공자들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있다(Spradley,1979)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유치원 생활에 대한 내용은 개별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1) 교사

① 이 교사

이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소재의 Y유치원의 교사가 되었으며 만 3세 부담임으로 1년 일한 뒤 계속 만5세를 맡아 현재 연령주임교사로 일하고 있는 5년차 교사이다. 이 교사는 학부시절부터 초·중학생의 과외지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처신할 줄 알고, 유아들에게는 재미있으면서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로 유능함을 인정받고 있다. 이 교사가 근무하는 Y유치원의 종일반은 독립된 종일반 교실과 종일반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각 반의 담임들이 연령별로 종일반을 맡고 있다. 본 연구자와 종일반 유아에 대해 많은 담론을 나누었으며 이 연구의 주요한 정보제공자이다.

② 추 교사

추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공립 유치원에서 5년 째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추 교사는 유

치원의 지역적 요인으로 10명의 유아로 한 반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서 첫 교사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경력교사에게 노하우를 배우지 못한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공립 유치원의 교사 순회방침에 따라 종일반을 전담하게 되면서 종일반 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③ 안 교사

안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2004년 2월 서울시 소재의 P유치원에서 4년동안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아이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실례로 아토피를 가진 유아가 타 유치원에 비해 비싼 원비 때문에 다른 원으로 옮기려고 하자 부모님께 순수하게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P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기농 식단이 아토피 아이에게 꼭 필요함을 눈물로 호소하여 채용하게 하는 등 유아를 위하여 노력하는 진정한 교사이다. P유치원은 성당부설유치원으로 모든 간식과 음식을 유기농으로 제공하여 아토피를 가진 유아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공립유치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도서벽지지역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종일반의 취지와 운영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④ 유 교사

유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타 지역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다 서울시 임용고시에 재차 합격하여 현재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 4년차 교사이다. 5살 아이의 어머니기도 한 유 교사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유치원 현장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사이다.

⑤ 구 교사

구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3년차 교사이며 추 교사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구교사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위해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종일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⑥ 신 교사

신 교사는 현재 공립유치원 종일반 교사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지난 2년간은 반일반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이번 해에 종일반 교사를 하면서 교육청의 종일반 교사연수를 통해 종일반 운영의 긍정적인 요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장사례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⑦ 송 교사

송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본 연구자와 1년 반 동안 경기도 소재의 S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소재의 M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 7년차의 베테랑 교사이다. 송 교사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유치원 행사를 주도하고 유아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넘치는 교사이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자유선택활동 중 벌레가 나타나서 아이들이 당황하며 교사를 부르자 “네?! 벌레가 나타났다고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슈퍼맨 노래를 부르며) 뽀빠밤~ 뽀뽀빠밤~!” 하고 달려가는 센스를 가진,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유능한 교사이다. 현재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M유치원에서 종일반교

사까지 맡고 있으며 유아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유치원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⑧ 한 교사

한 교사는 30세로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뒤 학사편입하여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송 교사와 함께 본 연구자와 경기도 소재의 S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S유치원에서 만3세반을 맡고 있는 경력 5년차의 교사이다. 한 교사는 컨트롤하기 힘든 유아를 잘 다루고 재미있는 동화구연수업을 진행하여 만 3세 유아들에게 30분이라는 긴 대집단활동도 집중하게 하는 인정받는 교사이다. 한 교사는 초임 1년동안 종일반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신입교사가 종일반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본 연구자와 근무하면서 유치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종일반 유아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제보자(informant)이다.

⑨ 정 교사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2년경력과 어린이집 1년경력을 가진 정교사는 현재 대학원에 다니며 학문적 열정을 지닌 교사이다. 정교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으며 자신 역시 어릴 때 어린이집생활을 경험하였고 부모의 정이 얼마나 그리운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일반 유아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⑩ 박 교사

박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어린이집 경력 2년과 유치원 경력 4년을 가진 베테랑 교사이다. 박 교사는 본 연

구자와 7년전에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대학시절부터 전공과 진로에 관련된 조언을 구하며 심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교사와 함께 유치원에서의 여러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교사로서 가지게 되는 고충들을 솔직담백하게 나누었던 실제적인 가르침의 선배이기도 하다. 박교사는 매년 선교활동에 빠지지않고 다니며 학문적인 관심사 역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유아교육분야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휴머니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이다.

각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배경과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종일반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사들의 일반적 배경과 근무하는 유치원의 종일반 유형

	교사들의 일반적 배경				유치원 종일반 유형			
	연령	학력	경력	종일반 경험	설립 유형	운영 형태	유아 구성	프로그램
이 교사	28	4년제 졸	5년	유	사립	오후재편성	단일연령	특별활동
추 교사	29	4년제 졸	5년	유	공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신 교사	27	4년제 졸	3년	유	공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송 교사	34	4년제 졸	7년	유	사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한 교사	30	4년제 졸	5년	유	사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안 교사	29	4년제 졸	4년	무	사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유 교사	28	4년제 졸	4년	무	공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구 교사	27	4년제 졸	3년	무	공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정 교사	28	4년제 졸	3년	무	사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박 교사	32	4년제 졸	6년	무	사립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별도 프로그램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예비연구를 위해 2007년 4월 5일 교사 2인과 1회의 집단면담을 가졌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들이 스트레스 행동 또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고, 종일반 유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 때문에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를 다루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확인된 교사들의 의견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로 확장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를 위하여 2007년 4월 26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약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으로서 반구조화된 면담방법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란 피면담자들이 포괄적인 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대화나 질문이 나타나 이러한 내용들이 의미있는 자료들로서 이용될 수 있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종일반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대하여 무슨 생각과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담소를 나누듯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대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사담(私談)으로 흐

르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1) 핵심주제면담(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는 집단면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주제면담 (focus group interview)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 면담은 대화를 자극 시키고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는 등 개인면담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핵심주제면담은 소집단을 구성하여 특정 연구주제에 대하여 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김영천, 2006)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자는 조정자(moderator)의 역할을 하며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집단토론을 자극시키고 촉진시켰다. 개방적인 질문의 내용은 종일반 유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종일반 유아의 행동을 어떻게 느끼는 지에 감정에 대한 내용과 현장에서 겪는 종일반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2회에서 5회의 집단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집단면담의 소요시간은 각 집단면담마다 다르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시간은 13시간 43분이다. 집단 면담의 구체적 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핵심주제면담 일정

회차	날 짜	소요시간(시:분)	참 여 자
1	2007. 4. 26	01:38	안 교사, 이 교사, 추 교사, 유 교사
2	2007. 5. 5	00:37	추 교사, 이 교사
3	2007. 5. 11	01:07	한 교사, 송 교사
4	2007. 5. 19	00:46	한 교사, 송 교사
5	2007. 6. 2	01:14	이 교사, 유 교사, 추 교사
6	2008. 4. 29	00:43	박 교사, 정 교사
7	2008. 6. 16	01:28	신 교사, 구 교사, 추 교사
8	2008. 7. 30	01:37	신 교사, 구 교사, 이 교사, 안 교사
9	2008. 8. 5	01:04	박 교사, 정 교사
10	2008. 8. 23	00:50	한 교사, 송 교사
11	2008. 9. 6	01:31	안 교사, 추 교사, 이 교사, 유 교사
12	2008. 9. 21	01:01	박 교사, 정 교사
	총 시간	13:43	

(2) 개별면담

본 연구에서는 집단면담을 주요 면담 방법으로 하면서 보조적인 방법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질문하는 면담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Lincoln & Guba, 1994) 개별면담을 통해서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물어보거나 집단면담에서 제시된 내용 중 그 의미가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개별면담은 각 연구 참여자들과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면담하였으며 총 19회 실시하였고 시간은 대략 5-10분정도 소요되었다.

3.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총 12회의 집단면담과 19회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 녹음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면담과 개별면담 시 연구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메모하여 관찰자 의견(observer's comment)을 남기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담한 당일 녹음자료를 듣고 전사하여 현장기록노트를 완성해 나갔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분석을 위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일차적 범주목록인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야기'와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이야기'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범주의 내용은 다시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통해 세부적인 하위목록으로 유목화 하였다.

자료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내용의 일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peer debriefing)의 방법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동료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교사인 외부자에게 자료분석과정을 보여주고 점검을 받는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견해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반일반 교사들의 종일반에 대한 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단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과 관련문헌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본 결과 종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 내용은 크게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야기와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이야기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야기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은 유치원에서 지내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종일반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종일반 유아의 내면적 고충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으로 구분되었다.

1)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반일반에서의 '종일반 유아'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반일반의 일과 속에서 겪게 되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 똑 소리 나게 야무지지만 영악한 아이,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하는 제 2의 선생님, 교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 관심 받고 싶은 아이, 교사를 힘들게 할 아이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1) 똑 소리 나게 야무지지만 영악한 아이

교사들은 반일반이라는 공간속에서 종일반 유아들은 대부분 다른 유아보다 인지적이나 언어적인 면에서 발달이 빠르다고 이야기했다. 한 교사와 신 교사는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새로운 활동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해가 빠른 편이며 말 그대로 똑 소리 나는 유아가 많다고 이야기 했고, 다른 교사들도 이에 동감하고 있었다. 또한 유치원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여러 교구활동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활동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했다.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사: 가끔은 종일반 유아들을 말로 못이길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요리조리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똑부러지죠. 여우예요, 여우.

(집단면담 2007. 5. 11)

신 교사: 종일반 아이들 전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빠른 거 같아요. 말이나 이해력 같은 부분에서..

(집단면담 2008. 6. 16)

구 교사: 종일반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는 참 잘해요. 자기 활동 딱딱 해내고. 잘 챙기고. 새로운 활동 생기면 첫 타자로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또 워낙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유치원 교구활동은 저보다 더 잘 알기도 하고. 그때 저는 초임이라 새로운 교구 내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있는데 그게 고무줄로 모양 만드는 그런 교구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알려주더라고요. '선생님 고무줄이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하고. '어? 이 녀석 좀 똑똑한데?' 했죠. 종일반 하니까 교구를 접할 기회도 시간도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집단면담 2008. 6. 16)

박 교사: 종일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유치원에 뭐가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새학기 때였나 실외놀이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3월에 영역 소개 하듯이요. 근데 내가 실외놀이터에서 모래놀이할 수 있다 하면서 찍기틀이나 소꿉놀이 장난감이 있는데 아직 개시되지 않은것 같다 했거든요. 난 못찾겠더라구요 (웃음) 근데 종일반 아이가 아니라며 저기 세면대 아래를 열면 장난감이 있다는 거 예요. 설마 했죠. 근데 정말 들어있었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종일반할 때 실외놀이 나와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유치원 살림을 더 잘 아는거죠.

(집단면담 2008. 8. 5)

혼합연령 종일반인 경우 나이가 어린 유아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유아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풍부한 경험, 인지 및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하였다. 또한 단일연령의 경우는 종일반 프로그램을 통해 더 오랜 시간 교육적인 공간에 있으면서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종일반 유아들은 인지적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이 빠른 편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특히 추 교사는 외동아이만을 둔 가정이 많은 요즘, 종일반 유아들은 혼합연령집단을 통해 형제간의 우애와 협력의 경험을 가지는 기회가 된다고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 교사: 아무래도 종일반에서 언니, 오빠들에게 언어적인 면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죠. 비단 종일반 아이뿐 아니라 반일반애들 중에서도 언니가 있는 아이들이 말이 빠르잖아요. 종일반 애들이 그 덕을 보는 거지요. 요즘 아이가 하나뿐인 집이 많은데 종일반 애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형제간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으니 그런 덕을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집단면담 2007. 5. 5)

송 교사: 혼합연령이기 때문에 종일반 아이들은 형님들에게 새로운 놀이를 배워

와서 같은 반 유아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기발한 구성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면 종일반 형아가 알려줬다고 말하곤 해요. 또 언어적으로도 빠르죠. 상호작용이 많아지니까. 비고츠키의 비계설정 이론 알잖아요. (웃음) 비슷한 또래끼리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거죠

(집단면담 2007. 5. 11)

이 교사: 꼭 혼합연령이라서 형님들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우선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뚝뚝한 유아들이 많아요. 열악한 환경의 종일반이라도 유치원이라는 공간이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니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교육시킨 만큼 똑똑해지는 거.

(집단면담 2007. 5. 5)

한 교사는 재원기간이 긴 유아, 예를 들어 5살부터 종일반을 했다면 유치원 생활이 3년째인 7살 유아의 경우, 오히려 교사보다 유치원 생활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교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송 교사와 박 교사는 유치원에서의 규칙, 교실에서의 규칙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의 사각지대에서 교사 몰래 규칙을 어기고 있는 종일반 유아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종일반 유아는 영악하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사: 유치원에 오래 재원한 아이들은 7살이면, 5살 때부터 했다고 치면 3년이 넘게 유치원 생활 한 거잖아요. 그것도 종일반에서. 유치원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가끔은 교사 말을 무시하기도 해요. 초임교사인데 착하고 애들 못 잡으면 그 아이들 정말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주임선생님정도 되어야 무서워한다니까요.

(집단면담 2007. 5. 11)

송 교사: 유치원에서 하면 안되는 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 몰래하면 된다는 생각? 선생님 안보는데서 친구를 때린다던가 하는 거요...

(집단면담 2007. 5. 11)

박 교사: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oo라는 여자아이였는데 또래아이들을 휘두르고 다니는 대장부 스타일이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깐 친구를 올린 거예요. 협박을 했는지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가 올려 놓고는 선생님 처럼 "올지마. 올지마. 올면 동생반 간다." 하며 달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면 타이르는 척. 그 때는 정말 다른 친구가 올렸고 oo가 달래주는 줄 알았어요. 알고보니 아니었죠. 내가 안보면 눈 흘기고 혼내고 내가 안 보이는 공간에서 그러는데 그럴 때는 정말 알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단면담 2008. 8. 5)

교사들의 담론 속에 나타난 종일반 유아에 대한 생각은 똑부러지게 야무진 아이지만 영악하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종일반 유아는 교육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교사·또래 모두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지고 유아는 인지적·사회적·언어적 발달이라는 혜택을 얻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에 영악한 아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2)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하는 제 2의 선생님

종일반 유아는 또래에게 인기가 많거나 놀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는 기관에 있는 시간이 다른 유아보다 길기 때문에 유치원의 공간과 일과와 규칙을 잘 알고 있고, 유치원의 교구를 가지고 활동할 기회가 많으며 종일반에서 다른 반 유아, 다른 연령의 유아와 상호작용할 기회 역시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놀이 활동방법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 면이 또래유아들이 종일반 유아를 따르는 요인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교사들은 4, 5세의 경우 종일반에서 동

생들을 도와주고 양보하는 형님으로서의 경험이 반일반 속에서는 또래를 챙기거나 타이르면서 제 2의 선생님, 즉 보조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다음의 면담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사: 나는 애들이 허락 맞는 경우도 봤어요. oo한테 물어봐 라든가, 그 아이에게 동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교사말보다 더 권위가 있을 때도 있다니까요.

(집단면담 2007. 5. 19)

박 교사: 가끔은 종일반 유아가 있어서 참 좋을 때도 있어요. 나같은 경우는 7살 반 말고 있잖아요. 종일반에서 언니역할 특특히 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 있으면 반일반에서 신입원아 오면 잘 챙겨주고 보조교사역할 특특히 해주죠. 내가 한시름 놓게 되죠.(웃음)

(집단면담 2008. 8. 5)

때때로 교사는 종일반 유아를 믿고 신입원아의 적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기도 하며, 현장학습 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유아가 많을 때에는 종일반 유아에게 보조교사의 역할을 맡기기도 하며 종일반 유아 또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다음의 면담에서 교사들의 이러한 경험이 잘 나타나있다.

구 교사: 저는데요 가끔 신입원아 오면 교실 규칙 제일 잘 아는 종일반 유아 붙여주기도 해요. "너가 우리 반의 꼬마선생님이 되어서 oo가 우리 반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선생님이 부탁해도 괜찮을까?" 하면 정말 책임감 가지고 잘 챙겨요. (웃음) 그리고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몰라요.

(집단면담 2008. 6. 16)

신 교사: 나도 그런 적 있어요. 현장학습 갈 때 뚫뚫한 유아들이랑 월령 늦어서 조금 느린 유아들이랑 짝꿍으로 붙이잖아요. 그럴 때 종일반 아이들이 한 몫 해주죠. 물론 종일반 아이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유치원 생활 오래해서 센스가 있다고 할까요.

(집단면담 2008. 6. 16)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들이 교실에서 보조 선생님의 역할은 물론 교실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놀이를 이끌거나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이야기 했다. 혼합연령 종일반의 경우 윗 연령의 유아들은 종일반 생활 속에서 아랫 연령의 유아들을 다루면서 또래 유아들을 능숙하게 리드하는 기술 즉, 사회적 능력과 인지적 지식 및 능력을 정교화하고 확장하게 된다고 보았다. 종일반 유아가 꼭 바람직한 활동으로 이끌어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또래 간에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아에게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교사들은 이야기 했다.

송 교사: 우리 반에 있는 종일반 유아인 OO는 반 아이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요. 왜 칼싸움, 총싸움, 죽이고 싸우는 그런 놀이로 놀이를 주도하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남자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 몰래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 둘 씩 그 놀이에 끼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교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놀이를 주도할 때도 있지만요. 어쨌든 또래에게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리더십이 있다는 거니까.

(집단면담 2007. 5. 19)

박 교사: 종일반 유아는 교실에서 두 가지 리더형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요. 놀이와 분위기를 주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형이 있고 배려하는 리더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늦은 아이들 잘 챙겨주는 언니 같은 리더형이요. 가끔은 교사보다 그 아이가 더 실세권이 있는, 교실에서의 실제적인 리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별면담 2008. 10. 11)

신 교사: 리더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 반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놀이 이런 거 주도하는 거 보면, 우리는 교사니까 어떻게든 자제시켜야 하는 놀이지만 아이들은 그게 가장 즐거운 놀이일거고... 그걸 찾아내서 친구들을 동요시키고 이끌어가는 기술이 있다는 건, 교사에게 맞서기도 하고, 나름 쿠데타인가요? (웃음) 아무튼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건 나중에 사회생활에 절대적으로 플러스 작용을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집단면담 2008. 6. 16)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종일반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하는 제 2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종일반 유아가 가지는 혜택 중의 하나는 또래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며, 그로인해 종일반 유아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종일반 유아는 교사의 신임을 얻고 교실에서 제 2의 선생님이로 활동하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

종일반 유아는 다른 유아보다 일찍 등원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이 있으며, 오후에 종일반에서 생활하더라도 유치원 건물 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교사와 자주 마주치게 되고 개별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많다는 것을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종일반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에 담임교사가 돌아가며 담당하기 때문에 종일반 유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따라서 그 유아에 대한 발달특성이나

기질에 대한 이해가 더 높다고 말했다. 즉, 종일반 유아는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이 긴 만큼 교사와 상호작용 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교사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종일반 유아는 교사와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면담사례를 통해 종일반 유아와 교사가 특별한 정이 들게 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사: 음.. 교사랑 더 친근한 관계를 맺게 되죠. 우리유치원 같은 경우는 종일반 교사가 따로 없고 요일별로 담임교사들이 로테이션을 하는데요. 종일반유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 친해지죠. 더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니까요.

(집단면담 2007. 5. 5)

추 교사: 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종일반 유아들한테 더 관심을 두기도 해요.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부족할거라는 생각에 잘해주게 되요.

(집단면담 2007. 5. 5)

정 교사: 우리 유치원은 독립된 종일반 교실이랑 종일반 전담교사가 따로 있어서 종일반에 가고 나면 잊어버리지만요, 꼭 집에 가기 전에 교실에 들어서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 안들었던 오전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너무 반가운거죠. 'oo반 선생님~ 저 집에 가요~' 하면서 뽀뽀해주고요. 그러면 사랑이라도 있나 찾아서 주게 되요.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정드는 거죠.

(집단면담 2008. 8. 5)

박 교사: 종일반 유아들은 아침에 일찍 등원하기 때문에 그나마 단둘이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도 해요. 일과가 시작되면 정신없지만 등원버스 오기 전에 등원하는 한두 명의 애들이랑은 이것 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집단면담 2008. 8. 5)

특히 신 교사와 박 교사는 집에서 편안하게 엄마와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시간에 유치원에 있어야 하는 종일반 유아들이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이야기 하며 반일반 일과 후에 공동 업무 및 행사준비로 인한 일이 없고 여유가 생긴다면 종일반 유아에게 더 많은 애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신 교사: 다 받아주고 싶은데 내가 맡고 있는 유아들이 한두명이 아니니까요. 하나하나 다 받아주고 달래주기는 힘들죠. 안타까워요.

(집단면담 2008. 6. 16)

박 교사: 일과 후에 별일 없으면 가끔 간식거리 가지러 주방 가다가 둘러보기도 해요. 그냥 우리 반 유아니까, 내 새끼들~ 하면서 한번 쯤 더 챙기게 되는거죠.

(집단면담 2008. 8. 5)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나타난 종일반 유아는 교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종일반 유아는 교사와 유치원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있는 종일반에서 오랜시간을 함께 지내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교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장시간 기관에 머물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었다.

(4)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

연구 참여자들의 담론 속에서 종일반 유아는 산만하다는 의견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신 교사는 집단면담을 통해서 종일반 유아에 대해 되짚어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경우에도 종일반 유아가 대집단 활동 시간의 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하며 종일반 유아가 산만하다는 의견에

동감하였다. 교사들이 지각한 종일반 유아의 산만한 행동은 한미현(1993)이 분류한 우리나라 유아의 문제행동 중에서 과잉행동에 해당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종일반 유아들이 보이는 산만한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안 교사: 유치원에 너무 오래있어서일까? 활동이 지겨운 건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집중하는 시간도 짧고.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면 그냥 짹짹 대충 그리고, 색칠도 안하고, 억지로 억지로 다른 색깔 써볼까? 색칠해볼까? 하면서 활동하게 해야해요. 유치원 활동자체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집단면담 2007. 4. 26)

정 교사: 집중 못하는 유아들 많아요.. 집에서 잡아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 상태 안좋아지는 걸까요? 일관성있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다듬어주어야 하는데 유치원에서만 교육적으로 유도하고 잔소리 하면 뭘해요. 집에서 안봐주는 걸..

(집단면담 2008. 8. 5)

신 교사: 저 지금 종일반 유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떠올려봤는데.. 어쩜 다들 대집단 활동 때 힘들게 하는 애들 많네요.. 대집단하려고 모일 때 제일 늦게 자리에 앉는 아이, 유난히도 대집단활동시간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맥을 끊어버리는 아이.. 거의 다 종일반유아네요. 이상해요.. 특별히 원인을 찾기는 힘든데.. 그러네요? 기질의 문제인가? 그렇지만 종일반 유아의 기질이 모두 그렇다 할 순 없잖아요..

(집단면담 2008. 6. 16)

한편 이 교사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종일반 유아는 교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 때문에 유아가 산만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다. 즉, 종일반 전담교사가 없어 같은 담임교사가 종일반을 맡게 되는 경우, 종일반 유아는 반일반에서 생활할 때도 종일반에서 지낼 때처럼 교사

와의 친근한 상호작용을 원하기 때문에 교사는 반일반에서의 대집단 활동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교사: 대집단 활동할 때 장난쳐서 꼭 큰소리 내게 해요. 집중을 못 한다기 보다는 집중을 안하는 거죠. 종일반 때는 아무래도 좀 느슨하게 대집단활동을 하니까 조금 산만해도 주의를 주지 않거든요. 나랑 더 친하다는 생각에 편하게 대하려는 거예요. 또 종일반에서는 나도 농담도 잘하고 말장난도 하고 정말 편하게 친구처럼, 엄마처럼 대해주거든요. 하지만 난 반일반에서는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데.. 그 애들도 정신적 혼란이 오겠죠. 나의 다른 태도에...(한숨)

(집단면담 2007. 4. 26)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들 중 혼합연령 종일반의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속어를 배워와 반일반에서 또래유아에게 퍼뜨린다고 이야기하였다. 남자 유아의 경우 종일반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특히 갈등상황에서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행동이나 스트레스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다음의 사례에서 교사들은 현장속의 종일반 유아의 행동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 교사: 종일반 유아들은 종일반에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배워 와요. 7살 애들한테 나쁜 말도 배워와서 반애들한테 쓴다고, 그런 말은 얼마나 금방 배우는지..예들 들어 '죽인다' 라던가, 심한 경우 쌍시옷 욕도요. 우리 반 아이 엄마들은 난리나죠.

(집단면담 2007. 5. 19)

송 교사: 형님들과의 생활에서 뭐랄까.. 약육강식의 법칙을 배우는 거 같아요. 형들이 양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뺏는 경우도 많으니.. 험박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런걸 배워서 우리반에 와서는 강자가 되는거예요.. 남자아이들이 특히 그런것 같아요.

(집단면담 2007. 5. 19)

추 교사: 원래 과잉행동 하는 유아들이 종일반에 많은 거 같아요. 남자애들이 더한 거 같고.. 적당한 감정표현 못하고 극에 달하는 표현을 해서 교사 힘들게 하죠. 표현방식 자체가 격하다고나 할까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꼭 소리를 지르고. 예를 들어 친구에게 레고를 뺏겼다고 하면 말로 하거나 교사에게 이르거나 약간의 화를 낼 수 있는데. 그 유아는 꼭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발을 구르고 아니면 방방 뛰면서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집단면담 2007. 6. 6)

정 교사: 갈등해결을 말로 안하고 손으로 하는 유아들 많아요. 주먹이나 발로차기, 꼬집기. 왜 그런지 몰라.. 남자유아들이 더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워낙에 성별에 따른 성향이기도 하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한데 종일반 유아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건 교사들은 알죠.

(집단면담 2008. 8. 5)

박 교사: 뭐랄까.. 기관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행동 같아요. 짜증도 많이 내고 쉽게 화내고 그러는거.. 그 유아만의 가정환경적인 특성도 무시 못하지요. 엄마가 직장다니면서 충분히 놀아주지 못하니까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고요.

(집단면담 2008. 8. 5)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산만하거나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사의 이야기 속에서 종일반 유아의 문제행동은 갈등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기관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관심 받고 싶은 아이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종일반 유아들은 소극적 행동, 과잉행동, 우는 행동, 꼬집부리는 행동, 거짓말 등의 문제행동을 하면서 교사의 관심을 받으려

고 하며 교사와 개인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위해 다른 유아보다 더 노력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교사들이 언급한 종일반 유아의 관심끌기 행동은 Burks(1977)가 개발한 유아용 문제행동척도 BBRS(Burks' Behavior Rating Scale)의 심한의존과 약한 자아력, 율화억제력 부족 등에 해당하며 문제행동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종일반 유아들이 관심끌기행동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이 교사: 아까도 말했지만, 반일반 수업을 마치면 아무래도 종일반 유아들과 여윌게 상호작용 할 수 있어요. 뭐 단둘이 동화책을 읽는다던가.. 그 아이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하고. 어제 엄마랑 집에 가면서 마트에 간다더니 뭘 먹었니? 뭘 샀니? 물어보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그 친밀함이 아이는 참 따뜻하고 좋은 거고요. 하지만 반일반이 되면 우리 교사들 상황 상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지만 종일반 유아들은 반일반에서 그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반일반 일과 내내 내옆에 붙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와 단둘이 대화하길 원하죠. 우리반 유아가 20명이 넘는데.. 하지만 그렇게 못해주면 그럴수록 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집단면담 2007. 4. 26)

안 교사: 어떤 아이들은 주도적인 유아와는 다르게 소극적이 되어서 관심을 끌기도 해요. 분명 할 수 있는 건데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교사의 손길을 원하는 거지. 실외놀이에 나가는데 행동이 조금 느린 아이가 있어서 내가 운동화를 신겨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종일반 유아가 '선생님 나도 신발 못신어요'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신겨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예전까지는 혼자서 잘 신던 아이였는데...

(집단면담 2007. 4. 26)

송 교사: 한번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기 얼굴을 때렸다고. 엄마는 바로 나한테 전화하고 아이한테 꼬치꼬치 묻고 관심 보이셨겠죠. 그 때 엄마의 그 관심, 그 반응이 좋았는지 강화되어서 그 후에도 몇 번 더 거짓말 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한동안 그 엄마와 매일 전화했어요.

(집단면담 2007. 5. 11)

박 교사: 유난히 때를 쓰는 아이도 있어요. 별거 아닌 일에 울거나 해서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기도 하고. 진짜 소소한 일 있잖아요. 확실히 울면 한번 더 보게 되니까 더 버릇되는 거 같기도 하고.. 집에서 그럴 때 관심보여주고 그럴테고. 계속 우는 행동으로 관심끌기 하는거죠.

(집단면담 2008. 8. 5)

반면, 신 교사와 이 교사는 종일반 유아가 칭찬받을 행동을 해서 교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했으며 다음의 면담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 교사: 물론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칭찬받을 행동을 하는 유아도 있어요. 한 번 칭찬받았던 행동은 강화가 되어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기도 하죠. 바느질을 잘한다고 칭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엔 꼭 나에게 보여주고.. 모든 아이들이 칭찬받는 것은 좋아 하지만 왠지 종일반 유아는 유난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집단면담 2008. 7. 30)

이 교사: 맞아요 관심받기 위해 바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우리 유치원은 원장실 옆에 정수기가 있어서 물통에 정수기 물을 담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아침에 한통 받아서 두기는 하지만 점심시간쯤에는 다시 받아와야하죠. 1학기 때는 종일반 유아가 정수기 위치도 잘 알고 뚝뚝하기도 하니까 많이 시켰어요. 하지만 2학기가 되면서 다른 유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거죠. 2학기 때부터 '도우미 어린이' 활동을 하면서 그 역할을 빼앗겼더니 엄청 섭섭해 하더라구요. 가끔 물을 많이 흘리거나 하는 도우미를 보면 '선생님, oo는 물을 다 흘렸어요. 나는 하나도 안흘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쵸?'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더라구요.

(집단면담 2008. 7. 30)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종일반 유아는 관심 받고 싶은 아이라는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종일반 유아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교사에 대한 애정을 더 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이든 문제행동이든 여러 가지 행동을 사용하여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유아가 교사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종일반 유아는 유난히 두드러지게 느껴진다고 교사들은 지각하고 있었다.

(6) 교사를 힘들게 할 아이

안 교사: 불쌍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 교사: (한숨을 쉬며) 이상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에 100%는 없으니까
애들에 따라 틀리다고 봐야죠. 힘든 아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추 교사: 그냥 그래요.. 잘하는 애도 있고

송 교사: 글썄요... 좀 그렇죠?

박 교사: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웃음)

신 교사: 종일반 유아요? 좀 그런가요? 그런거 같기도 하고..
유아마다 워낙 기질이 다르고 틀리니까요..

연구자가 “종일반 유아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의 대답을 적은 것이다.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에 대해서 객관적인 5살, 6살, 7살 유아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반 유아’ 라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의미는 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 한 교사는 학기 초에 반 배정을 할 때 종일반을 신청한 유아가 많은 반일수록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 송 교사는 종일반 유아가 신입원아로 온다면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맞이하게 된다고 하였다. 안 교사는 ‘명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종일반에 유난스러운 유아가 많음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한번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언급

하였으며 다음 이야기를 통해 교사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사: 새학기 반 편성할 때 종일반 똑같이 나누잖아요. '거긴 종일반 몇 명이야?'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안 받으려고 해요. 특히 학기초 적응기간 때는 종일반 아이들이 종일반에까지 적응하려니 더 힘드니까요..
(집단면담 2007. 5. 11)

송 교사: 겪어봐야 아는 거지만, 종일반 유아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우선 걱정부터 되긴 해요. 그리고 보면 선입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집단면담 2007. 5. 11)

구 교사: 갑자기 종일반 하겠다고 해도 힘들어요. 그 아이 종일반 적응 시키려면 새학기 적응할 때 보다 더 시간 걸리고. 힘들고.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종일반 시키는 경우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집단면담 2008. 6. 16)

정 교사: 종일반 아이들은 종일반으로 배정받아서 오후에는 종일반 교사랑 생활하지만 사고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전부 담임인 내 책임인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전화 드려야 하고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일반 유아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개별면담 2008. 9. 1)

안 교사: 난 그랬어요. 오후에 종일반에 가보면 손에 꼽히는 우리 반의 명물들이 있어요. 우리 유치원 300명 중에서 인물인 유아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단면담 2008. 9. 6)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미지가 일종의 편견이며 현장에 있는 교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교사로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종일반 유아에게 가지는 선입견으로 인해 종일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종일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상호작용은 또다시 종일반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교사들이 느끼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공공연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교사들끼리의 밀담 속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2)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종일반 유아’의 내면적 고충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종일반 유아들이 그들만의 특수한 배경변인과 종일반 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내면적 고충이 있다고 나타났고, 반드시 종일반 유아에게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교사들은 강조했다. 분석한 결과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종일반은 나에게 기다림의 공간이에요’로 유목화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1)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종일제 운영의 법적 근거인 유아교육법 제 12조 제 2항의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반일제 · 시간 연장제 ·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07)에서 밝히고 있듯이, 종일반 유아의 보호자는 직장에 다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일제 운영시간 이후에 유아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직장이 있는 부모는 집에 와서도 유아 상호작용하는 경우보다 식사와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며 이는 비단 종일반 유아뿐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이다(지성애 · 홍혜경, 2007). 특히 종일반 유아의 부모는 대부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함께 지낼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유아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유아들은 애정결핍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관심결핍은 결국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교사: 내가 생각했을 때 유아의 모든 문제행동의 원인은 애정결핍이에요. 종일반 유아가 문제가 많은 건 애정결핍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종일반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종일반 아니어도 문제행동 일으키는 애들 많자나요. 동생봐서 사랑못받거나 엄마 직장다니고 할머니랑 있는 애들.. 애정결핍의 상황을 가진 아이들 말이에요.. 결국 누군가의 사랑이 부족해지니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거죠.

(집단면담 2007. 4. 26)

추 교사: 우리반에 멀쩡히 잘 지내던 종일반 아이가 있었는데, 그아이는 엄마가 직장에 다니시고 아빠는 부동산을 하셨나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하시니까 아이들랑 충분히 놀아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종일반 유아였어요. 그런데 불경기에 아빠가 부동산을 그만두시고 직장에 다니시게 된거죠. 엄마는 워낙에 퇴근이 늦으셨고,, 아빠까지 직장에 다니시니까 애들랑 지내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갑자기 아침마다 울고 산만해지고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고 그러더라고요. 종일반도 안 가겠다고 떼쓰고... 그 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잘 지내던 아이인데 관심이 소홀해지니까 바로 적응 못하는 거 보고.. 애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관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단면담 2007. 4. 26)

반면 한 교사는 종일반 유아들 중에도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소위 '모범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교사들은 문제가 있는 종일반 유아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경험해서도 아니고, 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도 아니고, 사랑과 관심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종일반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부

모가 짧은 시간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종일반 유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교사들은 이야기했다.

한 교사: oo 기억나요? 종일반이어도 전혀 문제 없었잖아요.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훨씬 바르고 말 잘 듣고 적응 잘하는 애였어요. 말그대로 모범생. 엄마가 교사여서 그런가... 종일반에 보내는 대신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꼭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전시회나 놀이동산, 하다못해 공원에 가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참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집단면담 2007. 5. 19)

송 교사: 교사가 조금만 여유있게 관심을 가져줘도 하루만에 바뀌는게 아이들에게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더 사랑해달라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비록 혼나더라도 교사 손이, 눈길이 한번 더 자기에게 오도록 하는 게 더 관심을 받는 길이니깐요.

(집단면담 2007. 5. 19)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나타난 종일반 유아는 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한다는 것이다. 종일반 유아는 가정에서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한 애정 결핍증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며 교사와 부모 모두가 이러한 종일반 유아의 내면적 고통을 이해하고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교사들은 거듭 강조했다.

(2)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종일제는 교육과 보호의 두 가지 기능이 적절히 혼합되어야 하며, 교육과 학기술부(2008)에서는 '종합적인 보호'와 '전인적인 교육'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무리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여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해도 유치원은 유아에게 제한사항을 두

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이상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종일반 유아는 스트레스를 받을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다. 한 교사와 송 교사는 종일반 유아들에게는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규칙과 제약이 가득한 곳이며 종일반에서 지내는 것은 '사회생활'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한 교사: 아무리 조금 느슨하게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 애들한테는 유치원이 하나의 사회란 말이에요. 유아들도 유치원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9시부터 6시까지 사회생활 하는게 이렇게 힘든데 그 아이들은 고작 5살,7살이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단면담 2007. 5. 19)

송 교사: 맞아요. 가정이라는 공간에 비교한다면 유치원이라는 공간이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은 유아에게 제약이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리 편하게 해도 뛰면 안되죠, 친구랑 싸우면 안되죠, 간식남기면 안되죠, 장난감 친구랑 같이써야되죠, 양보해야되죠. 8시간 넘게 이런 제약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유치원 생활이 힘든 거고. 문제행동 하는거고..

(집단면담 2007. 5. 19)

추 교사: 종일반 교사 연수에서 그렇게 말해요. 생각해보라고, 교사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 듣고 싶냐, 하루에 세 시간만 수업 들어도 힘들지 않냐, 애들도 똑같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집단면담 2008. 9. 6)

다음의 면담사례에서 종일반 전담교사의 경험이 있는 추 교사와 유 교사는 종일반을 운영할 때 유아들이 많이 피곤해하기 때문에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추 교사: 확실히 종일반에서는 유아들이 피곤해 해요.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도 내가 짠 종일반 일일계획안이 있으니까 그 수업 꼭 해야 할 것 같

고.. 부모님께 보여야하는 교육인 것 같아 항상 고민스러워요..

(개별면담 2008. 7. 14)

유 교사: 나는 지금 종일반을 맡고 있잖아요. 애들이 종일반에 오면 긴장을 놓는다
고나 할까? 늘어지고.. 산만하고..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종일반에서는 좀 쉬어야 하는데 나는 또 교사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활동을 요구하게 되요.

(집단면담 2007. 4. 26)

(3) 종일반은 나에게 기다림의 공간이에요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종일반 유아들의 내면적 고충은 종일반에서 지낼 때
자신을 데려갈 양육자를 기다리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종
일반은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유아에게는 부모로부터 격
리되고 기다려야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다음의 교사들
이야기 속에서 종일반 유아들의 기다림에 대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사: 내가 초임때 종일반을 맡았는데, 종일반에서 제일 늦게 가는 애들은 얼마
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엄마
는 안와요?' 하면서 그 기다리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죠. 엄마가 와서 먼
저 가는 애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하며... 참.. 종일반 하면
서 너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단면담 2007. 5. 19)

추 교사: 우리 반에 한 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이번에 만 3세가 되서 유
치원 와서 종일반하는 애가 있어요. 보면 항상 되게 속상해해요. 엄마가
안 데리러 온다는 것에. 어찌다가 가끔씩 엄마가 일찍 온다는 약속을 하
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날은 하루종일 업 된 기분으로 지내는거예요.

(집단면담 2008. 9. 6)

박 교사: 엄마가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하셔서 주 3일만 종일반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만 3세니까 아직 시계도 못보고 요일도 모르고 그러죠. 항상 물어봐요. '나 오늘 종일반 하는 날이에요? 우리엄마 몇 시에 와요? 시계가 어떤 바늘에 가면 집에 가요?' 하고요. 오늘 종일반 하는 날이다 하면 시무룩해져서 종일 기분이 안좋아요.

(집단면담 2008. 7. 30)

종일반 유아들은 종일반 생활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정 교사는 종일반 유아가 유치원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일반 유아와 다를 것이라는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박교사는 유아가 종일반에서 지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유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과연 유아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재차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 교사: 예전에 한 15년 교사하신 원감님이랑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종일반 유아들도 유치원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전수업만 하고 가는 반일반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인식과 하루 종일 있는 종일반 유아들이 생각하는 유치원은 다르다는 거죠. 정말 동감되지 않아요? 반일반 아이들은 많아야 3시간? 4시간 와서 즐겁게 놀이하고 배우고 가는건데, 종일반 아이들은 유치원에 얼마나 오래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유치원은 엄마가 올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억지로 맡겨진 곳이기도 할꺼예요. 특히 종일반이라는 공간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집단면담 2008. 8. 5)

박 교사: 우리반에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 와서 종일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종일반 적응시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이집은 그나마 반애들 모두가 같이 오후까지 있는 건데, 유치원은 대부분 유아들이 점심먹고 집에 가잖아요. '선생님,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종일반 가기 싫어요. oo도 집에 가고 xx도 집에 가는데 왜 나는 유치원에 있어야 해요?' 하며 눈물이 글

쌍하더라고. '엄마가 집에 안계시니까 너 혼자 있어야 하잖아. 엄마가 회사 끝나고 오실 때까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있으니 얼마나 좋아?' 했더니 '아니에요, 나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기다릴래요.' 하는데 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 너도 집에 가고 싶겠지. 종일반을 꼭 해야만 할까. 누구를 위한 종일반인가 싶고.

(집단면담 2008. 8. 5)

2.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이야기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일반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종일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언급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종일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 '종일반 운영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생각'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1) 종일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는 기혼 여성의 취업 확산과 핵가족화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로 인해 종일제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사들도 종일반 운영은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이 자녀양육에만 주력하지 않고 자기개발의 시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일반에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교사: 이제 사회는 종일반, 어린이집추세인 걸요. 요즘 일하지 않는 엄마 잘 없
잖아요.

(집단면담 2007. 6. 2)

유 교사: 요새 추세도 추세지만, 저는 아이 엄마잖아요. 종일반 정말 필요한 걸 느
껴요. 지금은 oo를 친정엄마가 봐주니까 다행인데 이제 둘째 낳았으니 둘
다는 엄마한테 봐달라고 못하죠.. oo는 종일반 보내야해서 지금 어린이집
도 알아보고 있어요.

(집단면담 2007. 6. 2)

정 교사: 요즘 엄마들 얼마나 바쁜데요. 요즘은 엄마가 직장 다녀서 아이를 종일반
에 보내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
요. 자기 약속가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아이들이 2시에 오는 것도 너무 바
르다는 거죠.

(집단면담 2008. 8. 5)

또한 특별한 경우이지만 안교사와 추교사는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한 경험
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종일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 하였으며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안 교사: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종일반을 안하면 안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집에서 완전 방치 되는 거에
요. 서울엄마들은 집에서 이것 저것 많이 시키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치원 보내는 것도 감지덕지인거죠. 교육적인 면도 그렇지만
보호의 차원에서도 여기 유아들은 유치원에 오래 있어야해요. 유아들을 위
해서도 종일반을 꼭 운영해야 해요.

(집단면담 2008. 9. 6)

추 교사: 그래, 나도 알아요, 나도 첫째에 ooo(지역이름)에 있었잖아요. 그 곳도 시골
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집에 가면 엄마,아빠는 밭에 가고 아이들만 덩그라
니 남아있는 거예요. 종일반 하는 게 훨씬 낫죠.

(집단면담 2008. 9. 6)

2) 종일반 운영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생각

교사들은 운영되고 있는 종일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종일반 환경의 질적인 개선', '종일반 프로그램의 재정립', '종일반 자녀를 둔 부모의 인식변화' 로 조직화할 수 있었다.

(1) 종일반 환경의 질적인 개선

교사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일반의 환경이 교사의 입장에서나 부모의 입장에서나 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며 종일반 환경의 개선은 유치원의 현대사회 적응에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면담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 교사: 지금 실정이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종일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봐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환경에 내 아이를 맡기는 시대예요. 요즘은, 유치원이 살아남으려면 개선해야지요.
(집단면담 2007. 6. 2)

유 교사: 난 내 자식 정말 종일반 안보내고 싶었는데요.. 당장 애가 돌이니까 보낼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부모로서 그 종일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참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공립유치원) 종일반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보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면담 2008. 7. 30)

송 교사: 당장 애기가 뱃속에 있으니 종일반 현실이 더 안타깝네요. 우선은 내가 키우겠지만.. 나중에 정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될 거 같은데.. 정말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집단면담 2007. 5. 11)

교사들이 제시한 종일반 환경의 질적인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독립된 종일반 교실의 확보하고, 경력을 가진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할 것과 가정 같은 분위기로 종일반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① 기러기 생활은 그만 - 독립된 종일반 교실의 확보

독립된 공간이 없고 오전에 반일반으로 사용되는 교실이 오후에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종일반 유아, 종일반 교사, 반일반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종일반 유아는 다른 반 교실을 사용하면서 소속감을 잃게 되고, 종일반 교사는 다른 교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구사용이나 환경배치 등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여러 제약을 받게 되며, 종일반으로 사용 되는 반일반교실의 담임교사는 반일반 일과 후 교실 정리 및 다음날 수업준비를 하는데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박 교사: 별도의 종일반 교실이 있고 교사도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를 돌리니까 피곤한 날은 정말 웃음도 안나와요. 당연히 종일반 애들한테 영향을 주겠지요. 종일반 담당교사는 전담으로 따로 있어야 해요.

(집단면담 2008. 8. 5)

정 교사: 맞아요. 종일반 교실은 무조건 따로 있어야 해요. 별도 교실 없는 건 반일반에게도 피해를 줘요. 우리 옆 반을 오후에 종일반교실로 사용했는데, 그 반 선생님도 갈 곳 없고, 솔직히 교구니 뭐니 같이 쓰니까 신경쓰이고 그렇죠. 오후에 뒷정리하고 다음날 수업준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종일반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교사실이 있지만, 거기서 작업하긴 힘드니까요. 종일반 선생님도 괜히 그 교사 눈치보게 되고.

(집단면담 2008. 8. 5)

한 교사: 지금 여기는 종일반 교실이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하지만 내가 초임때

다니던 유치원에서는 종일반 교실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종일반 하는 애들이 많지도 않았고요. 처음 종일반을 맡았는데 초임이기도 하니까 워낙에 선생님들 눈치가 보이는데, 내 교실도 없고 남의 교실 쓰는게 얼마나 서럽던지... 아이들도 여기는 oo반이니까 교구하나 쓰는 것도 허락받아야하고... 또 개인장도 원래 있던 oo반 아이들것을 같이 쓰니까 소속감도 없어지고.. 우리가 어중이떠중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집단면담 2008. 8. 23)

② 무늬만 종일반은 그만 -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및 교사자격의 재정립

교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비용을 지급하면서 종일반을 맡게 하는 경우나 초임교사에게 종일반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종일반교사는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력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으며 반대로 유치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종일반교사에게 정교사대우를 해결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해 정교사채용 조건을 걸고 정교사 자격을 가진 신입교사를 채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 교사는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종일반을 전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종일반 운영이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은 거의 없지만 종일반 교실과 전담교사 등 필요조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고 대부분 무늬만 갖추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 교사의 의견이었다. 교사들은 종일반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종일반 교사의 처우개선을 확보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교사와 경력교사를 배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의 면담사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정 교사: 우선 종일반 교사를 정교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도 안되죠. 딱하니 종일반이라는 하나의 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담당교사를 갖추지 않는다는 건. 그럴 바에는 안하는 게 낫죠. 하지만 요즘 추세에 종일반 운영을 안하면 원아모집에 차질 생기고... 얼렁뚱땅 무늬만 갖춰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또 종일반 교사는 왜 초임교사에게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종일반을 맡는다는 건 어떤 교사든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초임교사에게는 훨씬 더 힘든 과제인거 같아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경력 있는 교사가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단면담 2008. 8. 5)

유 교사: 우린 병설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종일반 교사는 따로 공고내서 아르바이트처럼 기간제 교사를 뽑아요. 그럼 아무래도 정교사가 아니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래요. 이제 우리 쪽은 정교사들을 한해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방침이 내려왔는데, 이건 시도별로 틀리니까요. 다른 곳은 아직 정교사 아닌 곳이 꽤있어요. 유치원 교사 구인구직 사이트 들어가 보면 많이 공고 나와있지 않아요?

(집단면담 2007. 6. 2)

이 교사: 아무래도 종일반 교사의 처우를 확보해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일반교사는 워낙에 소속감도 없고 박봉이고 엄마들도 담임이라고 생각 안하고..여러 가지 안좋은 조건들만 가득하잖아요. 하지만 원감님이 하신다던가 경력 있는 교사를 채용하고, 신입교사한테 떠넘기지 말고 말이죠. 그사람들도 다 조건 걸어서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채용 조건으로 종일반 1년 해야 정교사 채용한다 이런 식으로. 또 처우개선으로 종일반 교사를 정교사보다 더좋은 대우를 해준다거나. 월급이나 그런 거요. 회사로 치면 나름 야간근무잖아요. 근로조건상 돈을 더 받아도 될 조건인거 같은데.. 그렇게 처우를 확보해주면 종일반 교사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종일반 운영에 훨씬 효과적일 거 같은데..

(집단면담 2008. 7. 30)

특히 정교사는 현재 유치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종일반 담임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껏 종일반 운영과는 다르게 안정된 모습을 찾았다는

경험을 말하며 종일반 교사의 자격조건을 재정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정 교사: 경력 10년 정도 가지신 선생님이 올해 종일반을 맡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종일반에 완전 평화가 찾아온 거 예요. 역시 경력은 정말 무시 못해요. 확실히 아이들을 다룰 줄 아는 선생님이시니까 아이들 안전사고도 확 줄고. 너무 조용한 거 있죠. 신기해요. 이전까지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또 워낙에 그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이면 유치원교사가 천직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일반 유아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주겠지요. 경력을 가진 교사가 종일반을 맡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집단면담 2008. 4. 29)

다시 말해 종일반 교사는 경력이 있어야 하고 정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유치원에서는 종일반 교사를 채용할 때 이러한 자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종일반 교사에게 정교사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③ 틀에 고정된 종일반은 그만 - 가정 같은 분위기의 종일반

교사들은 종일반의 분위기가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정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교실 영역배치의 틀에서 벗어나 휴식공간을 넓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유아의 개인별 발달수준 파악을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줄여야 하고 있었다.

유 교사: 교사 대 유아 비율에 있어서 종일반은 더 줄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일반 유아에게 필요한 건 개별적인 사랑과 관심인데 지금의 종일반은 단순히 엄마 퇴근시간까지 있을 공간, 거기에 교육적인 측면을 조금 가미한 정도인 거 같아요. 내가 종일반을 운영한다면 유아 대 교사비율이 8대 1을 넘지 않

도록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8명도 많아요. 5-6명 정도? 너무 꿈같은 이야기
인가?

(집단면담 2007. 6. 2)

박 교사: 저는 나중에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종일반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교사 두
명에 유아정원은 한 10명? 교실도 가정집 같은 분위기. 유치원처럼 영역구
분 칼같이 해서 규칙이 넘쳐나는 그런 곳 말고요.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집단면담 2008. 4. 29)

추 교사: 종일반 교실배치에서부터 달라져야 해요. 영역은 이렇게 나누어져야 하고,
아이들은 여기서 이 놀이만 해야 하고, 그런 걸 버려야 한다는 게 종일반
연수예요. 나도 많이 공감하고요. 종일반 운영은 우리가 배웠던 교육계획안
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08. 9. 20)

(2) 종일반 프로그램의 재정립

① 융통성 있는 일과 운영에 대한 지침서

교사들은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유치원 교사로서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종일반 일과는 반일반과는 다른 일과를 계획해야하며
전반적인 종일반 교육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을 찾을 수 있
었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종일반 연수를 통해 현재
융통성있는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사가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
하지만 현재 운영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박 교사: 오전에 정규 프로그램만으로 유아기의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괜히 교육부에서 반일제를 제시해놓았겠어요? 종일반에서까지 교육에 초점

을 맞추는 것보다는 충분한 사랑을 주고 많은 상호작용을 해야죠. 조금 느슨하게 운영하고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말이에요.

(집단면담 2008. 8. 5)

신 교사: 나도 이번에 종일반을 맡았는데 처음엔 그 강박관념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편해요. 애들도 종일반을 하고 싶어해요. 엄마들도 비용적인 부담 없으니까 사립처럼 그런 학습적인 거 요구안하구요.

(집단면담 2008. 6. 16)

추 교사: 종일반 들어올 때 나한테 인사해야하고 누구 왔는지 체크하고 우리가 배운 순서 있잖아요. 주제대로 진행해야하고, 수업 때도 바르게 앉아야 하고, 돌아다니면 안되고,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반일반에서 하고 왔는데 또 해야하니까요. 이제 나는 그냥 종일반 오면 한 두시간 맘대로 놀아요. 그리고 바깥놀이하고 간식 먹고 그러고 나면 애들이 확실히 달라져요. 많이 하지는 않지만 대집단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개별면담 2008. 9. 20)

공립유치원에서 종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추 교사의 종일반 연수 이야기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종일반 운영의 새로운 방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립유치원에서도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교사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추 교사: 우리는 교육청에서 연수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벗어나라. 유치원교사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 애들 규칙지키라고 얘기하고, 영역은 이렇게 나누어야 하고, 오늘은 이 활동을 꼭 해야하고 이런 생각에서 제발 벗어나라고요. 그 아이들은 충분히 피곤한 애들이다. 반일반에서부터. 우리는 수업안하면 아무것도 안 한거 같고 교사로서의 생각이 앞서고 그러지만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렇게 내가 그걸 포기하는데 거의 반년 걸렸어요. 이제는 너무 편해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유아들도 종일반에서 스트레스 풀고 가는 거예요. 느슨하게 해주니까요.

(집단면담 2008. 9. 6)

정 교사: 공립유치원 종일반 교사연수 괜찮은데요. 좋은 생각인거 같아요. 솔직히 교사들이야 그렇게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교사도 편하고 애들도 편하고. 근데 어디 사립에서 그게 되나요? 엄마들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교사연수나 지침이 내려오면 좋지요. 당당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생각인거 같아요.

(집단면담 2008. 9. 21)

박 교사: 교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나도 동감이에요. 벗어나야해요. 어디까지나 종일반이라는 공간에서는요. 그 틀에 박힌 규칙으로 가득찬 사고방식을 깨야 하는거죠. 맞아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제약없는 종일반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좀 누워서 놀 수도 있는거고. 단지 정말 집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제약만 있는거죠. 밥먹고 바로 눕지 마라. 왜냐면 소화기 안되서 배가 아플수도 있으니까. 누워서 책보지 마라. 눈이 안좋아져서 안경을 쓰게 되니까. 이런 정말 유아를 위한 규칙 말고는 없는거예요. 먹다가 좀 흘려도 되는거고, 간식 먹기 싫으면 나중에 먹어도 되고, 우린 꼭 시간내에 먹어야 하잖아요.

(집단면담 2008. 9. 21)

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종일반 프로그램은 정해진 일과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융통성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지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실외놀이의 활성화

교사들은 종일반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 실외놀이 시간을 늘리는 것을 제시하였다. 실외놀이장은 유아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감각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자연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다(이숙재, 2002). 종일반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자연 환경을 마음껏 탐색하고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외놀이의 기회를 주어 그들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반일반 유아는 부모님들과 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현상들에 대한 탐색과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겪을 수 있는 놀이경험을 종일반 유아는 종일반 프로그램의 실외놀이를 통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다.

정 교사: 종일반 할 때 뛰어놀아야 해요. 스트레스 풀어야죠. 유치원 교실 안에만 가 뒹눅을 순 없잖아요. 사립유치원 반일반은 영어다. 체육이다. 특별 활동하느라 실외놀이도 많이 못해요. 반일반 애들이야 하원하고 엄마랑 놀이터 가서 놀지만 종일반애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유치원에서라도 바깥놀이 많이 해야죠.

(집단면담 2008. 8. 5)

박 교사: 그 아이들은 에너지 방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바람도 쐬고 땅도 밟고 그러면서요. 실내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제한적이잖아요. 성향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상관없이 아이들은 뛰어놀기를 좋아하고요. 실외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방출할 기회를 가지는거죠. 어른들도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안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이들은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집단면담 2008. 8. 5)

송 교사: 종일반이나 반일반이나 바깥놀이 많이해야죠. 종일반은 또 실외놀이하기에 더 적합하기도 해요. 반일반 아이들이랑 시간이 겹치는 것도 아니고 그 놀이공간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집단면담 2008. 8. 23)

(3) 종일반 자녀를 둔 부모의 인식 변화

① 유아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 최선을 다해 관심 보이기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의 경우 개개인에 따라 성향이 매우 다르며 부모의 태도가 종일반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 하였다.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 유아는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아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종일반 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 교사: 솔직히 종일반 애들 다루기 힘들다고 하지만, 종일반이어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아이의 상황이 만들어낸 문제지. 근데 역시 양육자의 애정이 가장 영향이 큰 거 같아요. 그냥 종일반에 맡겨 놓는 것이 부모역할의 최선책이 아닌데.. 안그래요?

(집단면담 2008. 9. 6)

이 교사: 맡겨 놓으면 끝이라는 부모들의 생각이 참.. 지금은 종일반에 있지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간다면 학원으로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학습의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던 그 아이들이 커서 만들 이 사회는 어떻게 될지..

(집단면담 2008. 9. 6)

정 교사: 근데 종일반 유아의 문제행동은 종일반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문제는..... (박교사를 보며 박교사와 함께) 엄마. 엄마가 충분히 관심가지고 사랑해주면 유아들은 문제 없어요.

(집단면담 2008. 8. 5)

② 종일반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 선입견과 욕심 버리기

교사들은 부모들의 종일반 교사에게 가지는 불신과 종일반에서 학습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이 종일반 교사는 정교사가 아니고 자녀의 담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교사들은 말하면서 종일반 교사에 대한 부모님들의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모교육 실시와 경력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채용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 교사: 종일반 교사라는 이유로 교사 정체감의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반일반 정교사였기 때문에 올해 종일반 교사를 하니 작년부터 보내신 엄마들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종일반을 맡는지 알고 계시는데, 올해 처음 보시는 엄마들은 저를 보조교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유아에 대한 상담도 꼭 담임선생님만 찾으시고요. 그럴 때는 부모교육이라도 해야하나 싶죠. 모두 똑같은 정교사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집단면담 2008. 6. 16)

정 교사: 초임교사를 종일반교사로 넣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서투르기는 하죠. 반일반교사를 해도 초임교사면 엄마들이 다 아시고 약간 속상하게 대하실 때 있거든요. 하물며 종일반교사가 초임교사면 엄마들이 더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력 많으신 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이 종일반 교사해야 한다니까요. 유아들 통제도 잘되고 엄마들도 더 믿음이 가기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집단면담 2008. 9. 21)

유 교사: 나는 부모로서 종일반에 애들을 보내야 하는 입장이에요. 종일반 교사가 정교사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종일반 교사로는 경력 많으신 분한테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뭐랄까 반일반 교사는 초임교사라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왠지 종일반에서는 아이가 푸근한 사랑을 받았으면 싶거든요. 그러기엔 아이도 있고 경력도 많으신 선생님이 역시...

(집단면담 2008. 9. 6)

또한 종일반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별활동이나 수, 한글 등의 학습적인 활동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유치원에서는 편안하고 가정 같은 융통성있는 종일반 운영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특히 한 교사는 사립유치원은 부모들의 요구에 민감해야하기 때문에 융통성있는 종일반 운영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정 교사: 종일반은 거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잖아요. 엄마들이 원하시는게 그런거니까요. 미술, 과학, 영어 등등 특별활동 선생님오시는 경우가 많죠.. 활동도 학습지스러운 것이 많고.. 수나 한글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면담 때 '여기는 한글을 왜 안가르쳐주냐' 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요. 정말 끊임없는 부모교육이 필요해요.

(집단면담 2008. 9. 21)

한 교사: 우리가 아무리 융통성있고 편안한 분위기의 종일반 운영을 외쳐도 사립유치원은 어쩔수 없어요. 바로 원아모집으로 이어지는 걸요. 엄마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길 원해요. 돈주고 보내는 거니까 투자한 만큼 똑똑해지고 배워와야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시간만큼은 풀어주고 뛰어노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봐요. 바로 옆 유치원에서 엄마들이 원하는 학습활동을 많이하면 다 옮기실걸요. 참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사립유치원은 아무래도 상업적인 요소라고 해야 할까. 그걸 무시못하죠. 해결할 방법이요? 끊임없는 부모교육? 그거밖에 없겠죠. 법적으로 종일반에서는 학습을 금한다 하기전에는요. (웃음)

(집단면담 2008. 8. 23)

한편 이 교사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만 5세의 경우에는 종일반에서 유아가 원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효율적인 활동시간이 되었다는 경험을 말했다. 만 5세의 경우 오후시간에 많이 피곤해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하게 운영하는 종일반은 오히려 지루해질 수 있으므로 유아의 흥미에 맞는 특별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이나 유아에게나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종일반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하여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종일반의 운영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가 종일반 유아와 종일반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문화 기술적 탐구방법을 통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종일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일반 유아에 대한 이야기

1) 교사들이 이야기 하는 반일반에서의 '종일반 유아'

교사들의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반일반의 일과 속에서 나타나는 종일반 유아에 대한 생각은 '똑소리 나게 야무지지만 영악한 아이',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하는 제 2의 선생님', '교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 '관심받고 싶은 아이'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반일반에서 종일반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면서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것으로 소제목 속에서 나타나듯이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에게 '교사를 힘들게 할 아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첫째, 교사들은 반일반이라는 공간속에 있는 종일반 유아들이 대부분 다른 유아보다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발달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종일반의 유아는 연령이 많은 유아에게 사회적·인지적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단일연령으로 구성된 종일반의 유아는 유치원이라는 교육적인 공간 속에서 장시간 지내면서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인지적·언어적·사회적 발달이 빠르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했다.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McClinton과 Topping(1981)의 반일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유아들에 비해 종일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유아들의 지능이나 사회성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종일반 유아의 인지적·언어적·신체적 기술이 반일반 유아보다 높다고 나타난 Humphrey(1980)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속담처럼 유아교육의 장인 유치원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종일반 유아들은 반일반 유아보다 교육적인 혜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 종일반 유아들이 또래보다 뛰어난 인지적·언어적·사회적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은 '알밧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영악한 아이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영악함이란 '이해가 빠르고 약다'는 의미로 '약다'는 것은 인성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속에는 인지적으로 빠르다는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약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종일반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하며 교실에서 제 2의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했다. 교사들의 담론에 의하면 유아는 종일반에서 위·아래 연령의 유아와 상호작용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종일반 경험이 있는 유아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다는 연구결과(Stewart, 1990)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일반 유아는 또래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리더의 성향을 보이고 친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교사들 역시 종일반 유아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의 일부를 기꺼이 맡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종일반 유아가 교실 안에서 '제 2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은 리더십을 가진 유아들이 교사가 원하지 않는 놀이를 주도하여 교실의 분위기를 흐리는 등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종일반 유아가 보이는 리더적 성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의 담론을 통해 종일반 유아는 교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나타났다. 왜냐하면 종일반 유아들은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주지희, 1996). 종일반 유아는 다른 유아보다 일찍 등원하기 때문에 교사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생기며, 반일반 일과를 마친 오후에는 같은 유치원내의 종일반에 있기 때문에 교사와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지게 되며 교사와 종일반 유아 간에는 자주 보면 정이 들듯이 애뜻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와의 특별한 관계형성은 종일반 유아가 오랜 시간 가정과 격리되어 지내면서 겪게 되는 정서적인 어려움(정미라 외, 2004)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산만하고 공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일반 유아의 행동을 관심 끌기 행동이나 스트레스 행동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종일반 유아가 반일반 유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인다고 인식하였다는 연구결과(정혜경, 2008)와 같은 맥락에 있다. 실제로 종일반 유아들은 반일반 유아보다 더 공격적이고(단현홍, 1997; 조선숙, 2001), 문제행동을 보이며(고선희, 2005), 스트레스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박화윤·안라리·하양승, 1998, 김희형, 2002; 진성아, 2007)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종일반 유아가 산만하고 공

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지지해주고 있다. 교사는 유아의 공격성, 주의집중, 비행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이선주, 2007) 교사의 스트레스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신혜영, 2004; 엄정애·김혜진, 2005),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교사는 학생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Yoon, 2002). 따라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종일반 유아가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 상호작용이 다시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다섯째,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종일반 유아는 교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칭찬 받을만한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부정적으로는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의 여러 가지 관심 끌기 행동을 스트레스 행동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부모에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부모로부터의 관심 결핍'과 '부모와의 격리'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지성애·홍혜경, 2007), 가정과 기관 모두 종일반 유아에게 더욱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가 교사를 힘들게 할 것 같은 아이라는 이미지를 가진다고 하였다. 힘들게 할 것 같은 아이라는 의미는 교사가 신입 원아를 아직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으로 인해 그 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됨을 뜻한다. 교사들은 경험을 통해 종일반 유아가 영악함,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 관심끌기 행동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일반 유아가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교사들은 유아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였다.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이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없는 교사들끼리의 밀담으로 종일반 운영의 사각지대에 감추어져 있었던 사실로서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교사들은 자신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선입견으로 인해 유아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사들이 이야기 하는 '종일반 유아'의 내면적 고충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종일반 유아는 그들만의 특수한 배경과 종일반 생활로 인해 여러 가지 내면적 고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있는 맥락을 찾을 수 있었다. 종일반 유아의 내면적 고충이란 유아가 외현적으로 의사표현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교사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는 종일반 유아를 대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배려해 주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이야기 하는 종일반 유아의 내면적 고충의 내용은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종일반은 나에게 기다림의 공간이에요'로 나타났다.

첫째, 종일반 유아는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정이 결핍되기 쉬우며 종일반 유아가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이유도 교사와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유아는 부정적이고 체벌을 받는 행동일지라도 부모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하여 문제행동을 한다는 지성애와 홍혜경(2007)의 의견을 지지해준다. 하지만 종일반 유아가 모두 애정결핍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외의 경우도 있으며, 부모가 종일반 유아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경우에는 종일반 유아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교사들은 언급하였으며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사들 역시 종일반 유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둘째,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종일반 유아들의 내면적 고충은 종일반 유아들은 편안한 가정에서의 휴식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종일반 유아들이 종일반에서 생활하는 것을 사회생활에 비유하며 8시간 이상 기관에서 지내는 것은 유아들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종일반에서는 유아들이 피곤해하기 때문에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교사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는 교사와 유아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서현과 이승은(2008)의 연구에서 실제로 오후가 될수록 종일반 유아들은 피곤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심지어 걸어나다니거나 일과활동을 하면서도 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종일반 교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교육기관에서 보내게 되는 종일반 유아들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종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셋째,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종일반 유아들의 내면적 고충은 종일반에서 지낼 때 자신을 데려갈 양육자를 기다리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보육시설경험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알아본 이진원(2006)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집에 있는 것 보다는 보육시설에 가는 것을 선호했지만 귀가시간에 대해서 63%의 아동이 지금보다 더 빨리 귀가하기를 원했다고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를 통해 종일반 유아들의 가정과의 격리와 귀가시간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일반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종일반에서 지내는 것이 유아에게 최선책인지에 대해서 재차 생각해보아야 한다.

2.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이야기

1) 종일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

교사들은 종일반운영이 일하는 엄마들이 많은 요즘 가정에 자녀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기도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윤경숙(2007)의 연구에서 교사의 90%이상이 종일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는 순위가 가장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정미선(2007)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해 연구한 결과 종일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이유는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로 나타났고, 최미숙(2005)은 부모를 대상으로 종일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95% 이상이 종일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종일반 운영은 교사와 부모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교사들은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유아들은 반일반 수업 후 부모에게 방치되기 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종일반은 필수적인 방침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여 종일반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현실적으로 피할수 없는 과제이며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종일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2) 종일반 운영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생각

종일반 운영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생각은 '종일반 환경의 질적인 개선'.

‘종일반 프로그램의 재정립’ ‘종일반 자녀를 둔 부모의 인식변화’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종일반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임이 분명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일반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선사항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종일반의 개선되어야할 환경적 요소는 ‘기러기 생활은 그만 - 독립된 종일반 교실의 확보’, ‘무늬만 갖춘 종일반은 그만 - 종일반 전담교사의 배치 및 교사 자격의 재정립’, ‘틀에 고정된 종일반은 그만 - 가정과 같은 분위기 조성’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사들은 종일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된 종일반 교실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교사들이 종일반의 문제점으로 독립된 종일반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윤경숙, 2007) 종일반 전용교실의 확충을 요구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정미선, 2007). 이처럼 독립된 종일반 교실의 확보는 종일반 유아와 종일반 교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며 반드시 갖추어야할 종일반 운영의 조건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종일반 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종일반을 전담하는 경력있는 정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이는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종일반 담당교사의 자격과 자질에 대하여 기쁘고 경력직이 있고 따뜻하게 보살펴줄 어머니 같은 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부모와 교사 모두가 종일반 교사로 경력교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치원에서는 경력교사를 종일반 전담교사로 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개선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3항에 따르면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7) 종일반 환경의 개선을 위해 유치원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종일반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개선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하였다. 이는 오후 종일반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 편안함, 안정감이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는 우윤숙(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들은 종일반 유아의 학급당 인원이 6-10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유아에게 미치는 교사의 손길과 보살핌의 폭이 크길 기대하고 있다는 최미숙(200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정적인 편안한 분위기의 종일반 운영은 교사와 부모 모두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종일반 운영의 변화가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교사들은 바람직한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는 종일반 프로그램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종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도 종일반 교사들은 참고할 만한 종일제 프로그램, 교육자료 등이 부족하여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다(신한임, 2003; 윤경숙, 2007; 정미라 외, 1999; 홍용희 외, 2007). 교사들이 제시한 종일반 프로그램 재정립의 내용은 '융통성 있는 일과 운영에 대한 지침서', '실외놀이의 활성화'로 구분되었다.

먼저, 종일반 프로그램은 융통성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정해진 일과운영의 틀에서 벗어나도 괜찮다는 제도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일반 교사들은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정해진 틀의 일과운영을 탈피해야한다는 생각과 교사로서 가지는 교육적인 의무가 모순으로 작용하게 되어 혼란이 오게 된다. 따라서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일반 교사를 위한 교사연수나 교육부의 지침이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융통성있는 종일반 운영이 의무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실외놀이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

이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실외놀이장은 유아에게 다양한 감각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탐색과 도전을 시도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숙재, 2002)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간 실내에 있어야 하는 종일반 유아가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므로 실외놀이는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하며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교사들은 종일반의 개선을 위해 종일반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내용은 '유아에 대한 인식변화- 최선을 다해 관심 보이기', '종일반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 선입견과 욕심 버리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들에게 필요한 유아에 대한 인식변화는 자녀를 종일반에 보내면서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중 유아들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들의 관심은 유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직장에서의 일을 가정에서까지 하는 경우나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돌봐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지성애·홍혜경, 2007) 유아들은 항상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부모들은 종일제 프로그램에 자녀를 보냄으로써 불안감, 죄책감이 덜어지고 직장에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양옥승·이영자, 1991)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내는 혜택만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종일반에 맡김으로 종일반 유아가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고려하여야 하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중됨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종일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변화는 부모들이 가지는 종일반 교사에 대한 선입견과 종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한다는 것이

다.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종일반 교사에게 가지는 부모들의 선입견은 종일반 교사를 정담임교사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종일반 교사는 교사효능감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서현과 이승은(2008)의 연구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담임교사가 아닌 가짜교사로 살아가기' 라고 표현하며 부모뿐 만 아니라 유아들조차 종일반 교사를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고 인식해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흔들린다고 밝힌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학습을 중시하는 부모님의 요구사항에 맞춰져야만 하는 유치원의 현실 때문에 융통성있는 종일반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관한 어머니와 교사의 요구를 조사한 안선희(2000)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미술, 음악, 한글, 수학 등의 특별활동을 원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립유치원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어머니들이 특기교육을 요구한다는 여러 연구(안성실, 2002; 우윤숙, 1997)를 통해 교사들은 종일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종일제 프로그램에서 특기중심의 운영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든 부모들이 특기중심의 교육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일반 유아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는 생각에 대한 연구로서 교사들의 면담 자료만을 수집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종일반 유아들이 실제로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관찰을 통해 종일반 유아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문화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일반 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이 인식은 교사와 종일반 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Clarke, 1992; Howes, 1997) 점을 고려할 때 교사-종일반 유아의 상호작용과 교사-반일반 유아의 상호작용이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흐름은 종일반의 운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종일반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교사들은 언급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제안하는 종일반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일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27- 34세의 경력 3-6년차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루어졌으며, 교사들의 연령과 경력이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의 연령과 경력에 따라 종일반 유아와 운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과 학력, 경력을 가진 교사들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고미란(2003). 공립 유치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선희(2005). 종일제와 반일제 유아들의 문제행동 특성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지민(2003). 유치원 종일반 학급편성방법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과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1) - 총론.
- 교육부(2005). 200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구정주(2001). 종일반 오후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희(200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2004).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은혜(2006).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희(2003).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진(2005). 유치원 오후 재편성 종일반 담당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형(2002).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들의 스트레스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단현홍(1997).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종일반과 반일반 유아의 공격성 차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혜영(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과 개인 내적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세진(2002). 공·사립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민(2007). 오후재편성 혼합연령 학급구성에 대한 유치원 종일반 학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숙(2001). 유치원의 종일반 현황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지희 · 이봉선 · 탁옥경(2005).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유아교육연구, 25(1), 237-258.
- 서현 · 이승은(2008). 공립유치원의 오후재편성 종일반 운영에 따른 교사와 유아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3), 399-411.
- 신한임(2002). 어린이집 종일반의 오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정(2008). 유치원 오후 재편성 종일반 유아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영(200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성실(2001).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수연(2000).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나타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유아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정은(2006). 최근 3년간 유치원 종일제 운영 현황. <http://www.mest.go.kr> 에서 2008년 9월 30일 인출.

- 안지영 · 한진원 · 김성숙 · 이은영(2007). 종일반과 반일반 유아의 대처행동 유형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49, 107-128.
- 엄정애 · 김혜진(2005). 유치원 종일반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교육연구, 25(5), 75-100
- 양옥승 · 이영자(1991). 종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9(1), 165-180
- 오경미(2002).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유치원의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윤숙(1997). 공립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조사: 경북상주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준호 · 홍용희(2005). 만 4, 5세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 관계형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3), 177-200.
- 윤경숙(2007). 경기도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화(2002). 공·사립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문옥(2004).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9(3), 333-349
- 이선주(2007). 유아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송희(2006).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 스트레스 행동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2002).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윤정(2006). 서울특별시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기옥(2004). 유치원 에듀케어 교육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라·홍용희·엄정애·이순영(2000).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1), 59-79.
- _____ (2004). 유아를 위한 종일제 프로그램의 운영. 서울: 양서원
- 정미선(2007).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구(1990). 유치원 종일반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정서성과 사회성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정·이연희·김규수(2006). 유치원의 일과운영 프로그램에서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집단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지능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391-412
- 정혜경(2008). 유치원 운영시간유형,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교사 및 어머니의 지각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진(2005). 오후 재편성 혼합연령 종일제 유아들의 돕기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숙(200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형에 따른 유아의 공격행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성애·홍혜경(2007). 영·유아 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진성아(2006). 유치원의 반일반, 종일반 운영에 따른 만 5세아의 스트레스 행동 차이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숙(2005). 유아교육기관의 종일제 운영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국유아교육학회(2008). 유아보육학사전: 용어편.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한나래(2007). 통합형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용희 · 김기혜 · 강경아 · 김수정(2007).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유아교육연구*. 27(5), 335-355.

황영숙(2004). 유치원 종일반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수원 · 인천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urchinal, M., & Lee M., & Ramey, G. (1989). Type of daycare and preschool intellectual development in disadvant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128- 137.

Clark, P.(2001). *Resent research on all-day kindergarte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53982)

Clark, P., & Kirk, E. (2000). All- day kindergarten. *Childhood Education*, 76(4), 228-231.

Cryan, J., Sheehan, R., Wiechel, J., & Bandy-hedden, I.(1992). Success outcomes of full-day kindergarten : more positive behavior and increased achievement in years aft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 187-203

Da Costa, J., & Bell, S. (2000) *Full day kindergarten at an inner city elementary school: perceived and actual effect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0 751)

Elicker, J., & Mathur, S. (1997). What do they do all day? Comprehensive evaluation of a full-day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459-480.

Egeland, B., & Hiester, M. (1995).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infant day-care and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6, 474-485

Elicker, J., & Mathur, S. (1997). What do they do all day? Comprehensive evaluation of a full-day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459-480.

- Ellis, D., & Rogoff, B. (1982). The strategies and efficacy of child versus adult teacher. *Child Development*, 53, 730-735.
- Fromberg, D. P. (1999). 종일제 유치원: 교육과정의 계획에서 실천까지. 이기숙 · 전선옥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Fusaro, J. A. (1997). The effect of full-day kindergarten on student achievement: a meta-analysis. *Child Study Journal*, 27(4), 269-280.
- Harman, D. (1982). Extend-day kindergarten vs. half-day kindergarten achievement differences, Master's Thesis, Kean College of New Jerse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15 784)
- Howes, C., & Hamilton, C. E. (1992b).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 859-866.
- Humphrey, J. W. (1980).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full-day kindergarte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902 24)
- McClinton, S. L., & Topping, C. (1981). Extended-day kindergarten : Are the effects intangibl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74, 39-4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2). Early child care and children's development prior to school entry: Result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1), 133-164.
- Sagi, A., Koren-Karie, N., Gini, M., Ziv, Y., & Joels, T. (2002). Shedding further light on the effects of various types and quality of early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The halfa study of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3(4), 1166-1186
- Schwartz, S. L. (1983). Length of day-care attendance and attachment

Behavior in eighteen-month-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1410-1413.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80년에 출판)

Stewart. A. C. (1990). 탁아[*Daycare*]. 서영숙 역. 서울: 교육과학사.

Yoon, J. S. (2002). Teacher characteristic as predictor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stress, negative affect, and self- efficac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0, 485-494.

Vygotsky. L. (2000). 사회속의 정신[*Mind in society*]. (황해인, 서정선, 김선옥 공역). 서울: 양서원. (원전은 1973년에 출판).

ABSTRACT

The Analysis of Teachers' Discourse on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Seo Yeon-keum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eachers' opinions on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through their discourse and conduct an in-depth analysis to get improvement measures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results will make several suggestions for operatio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since opinions on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from the actual field were reflect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in the study.

1. What are teachers' opinions on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2. What are teachers' opinions on operatio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The study implemented 12 group interviews and 19 individual interviews with 10 kindergarten teachers from April 26, 2007 to September 30, 2008. All the subjects have teaching experience of over three years and five of them have teaching experience for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Data were collected by making a short sketch and recording at the spot until they became sufficient for analyzing. Transcripts for interview materials and contents recorded in notes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for data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were categorized into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nd operatio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The following are the study results.

First of all, teachers' discourse on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was again classified into teachers' opinions on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nd teachers' opinions on the children's internal predicament experienced during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The study analyzed teachers' opinions on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they had during half-day work and categorized the opinions into several categories; 'a very smart, but clever child', 'another teacher leading relationships among peers', 'a child who forms special relationship with a teacher', 'a inattentive and aggressive child', 'a child who wants more affection' and 'a child who will make a teacher difficult.

Next, it was found that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were in various internal predicaments because of their unique background variables and full-day kindergarten life, for example, 'please love me', 'I want to have a rest at home', and 'full-day class is space for waiting to me'.

Secondly, teachers' discourse on operatio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were categorized into 'inevitable reality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nd 'teachers' opinions on improvement for operatio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The teachers faced up to the reality of inevitability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for various reasons, pointed out problems of current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n various aspects. The teachers' opinions on improvement for operatio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were again categorized into 'qualitative improvement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 environment', 'reestablishment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nd 'change in perception of parents with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Qualitative improvement measures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 environment were as follows; 'no wild goose style - securing a full-day program classroom', 'no perfunctory full-day program - placement of a teacher responsible for full-day program' and 'no fixed full-day program - creation of home-like atmosphere'.

Next, for reestablishment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the teachers made suggestions like 'guidance for flexible time management' and activation of outdoor play'. That is, the guidance claiming that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should be operated flexibly breaking away from the fixed schedule is required. In addition,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utdoor play in operatio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nd suggested its activation.

Lastly, the teachers thought change in perception of parents with children of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r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And detailed changes include 'change in perception for children - showing affection with their best' and 'change in perception for full-day kindergarten programs - getting rid of prejudice and greed'.